朝鮮日報
夕刊
十五日(金)

比島 歷史的盛典 初代大統領就任

盛儀參列人員無慮十五萬!

東洋에 新獨立國出現

【마닐라十五日發電通】多難하엿던 比律賓獨立運動은 이제成功의 第一段階에 到達하야 十年後에는 完全한 獨立을 獲得하게되어 그때까지의 暫定的콤몬웰스政府는 玆에 完成되어 獨立運動의 功勞者케손氏는 今十五日을 卜하야 드듸어 初代大統領에 就任하는 盛大한 式典을 擧行하엿다 是日에 마닐라全市는 歡喜에 뒤끌어 劇場前에 一萬二千五百弗을 投하야 整備한 大스탄드에는 米國、比律賓兩國旗가 裝飾되고 午前七時三十五分부터 參列의 官民이各各指定席에 着席하자 八時十五分 比律賓總督머피氏 米國陸軍長官덴氏 初代大統領케손氏、同副大統領 오스메나氏等은 滿場의 起立拍手裡에 스탄드正面에 列席하야 이에 獨立國比律賓의 永久히 記念할 初代大統領의 就任式은 開會되엇다 케손大統領에게 祝意를 表하는 祝砲는 殷殷하게 十九發을 울렷다 케손大統領은 오스메나 副大統領과함께 아프로나가서 肅然無聲한 大衆에게 向하야 音吐朗朗 就任宣誓를 하고 이어서 케손大統領의 施政演說이 잇슨後 就任式은 同九時閉會하엿다 이로부터 即時 祝賀行進에 들어갓는데 이大行進은 軍隊를 爲始하야 比律賓諸州團體 一般市民等 十五萬을 算하엿스며 에는 모다 米國、比律賓兩國旗를 흔들면서 市中을 巡廻하엿다 在留日本人도 日本人商業會議所主催下에 數百名이 이行進에 參加하야 東亞에 誕生한 友邦의 慶事를 衷心으로 祝賀하엿다

(寫眞은 比島初代大統領)

比島獨立宣言案에 루大統領署名

【華盛頓十四日發聯合】루스벨트大統領은 十四日午後 白堊館에서 新比律賓聯邦獨立에 關한 宣言案에 署名하엿다 宣言은 如左하다

比律賓島의 現存한 政府는 이에 終焉을 告하고 聯邦政府는 이에 諸權利、特權、權限及 義務를 享受負擔하게될것이다

그리고 루스벨트大統領은 十四日午後 新聯邦初代大統領케손氏에게 祝電을 打電하야 聯邦의 前途를 祝福하엿다

新獨立國前途를祝電

廣田外相祝電

【東京電話聯合】十五日 比律賓大統領就任式에 廣田外相은 米國政府를 通하야 케손新大統領就任에 對하야 日本政府의 祝意를 表明하기爲하야 齊藤大使를 通하야 如左한 祝電傳達을 訓令하엿다 比律賓島聯邦政府樹立式典에際하야 日本政府를 代表하여 閣下께 對하야 이에나는眞摯한 慶祝의 意를 表한다 新聯邦의 前途多幸하고 健全한 發達을 遂하야 東亞全般의 平和와 繁榮增進에 寄與할것을 나는 確信하는바이다

日本帝國外務大臣 廣田弘毅

比律賓島聯邦政府大統領마누엘、엘、케손 閣下

그리고 同時에 外務當局은 比島獨立記念式을 特히 新國家가 誕生하엿다고 聯邦의 前途多幸하기를 빈다는 旨의 當局談을 發表하엿다

勞働大衆保護와 健全財政을 誓約

케손氏의 就任演說

【마닐라十五日發電通】就任式에서한 케손大統領의 演說要旨는 如左하다 나는法律과 秩序의 維持、司法權의 獨立、勞働大衆의 保護、健全한 財政을 誓約하는者이다 또對外的으로는 世界各國의 親善은 우리政府의 金科玉條로 하는바이므로 諸外國人民의 利益은 米國人이나 他의 外國人이나 同樣으로保護될것이다 나는希望과 忍耐로써 將來에 對하야 努力하련는者이다

比島保全爲하야 太平洋로카르노案示唆

滯比中의「킹」氏主張

【마닐라十三日發聯合】比律賓獨立記念祭에 參列하기爲하야 마닐라에 滯在中인 米國民主黨上院議員킹氏는 獨立後의 比島保全을 爲하야 太平洋岸諸國을 爲하야 關係各國間에 比島에 關한 多邊的條約을 締結할것을 主張하고 太平洋로카르노案締結을 示唆하야 十三日 如左히 述하엿다

比島는 獨立後太平洋諸國의 國際關係에 노히지 안호면 안되게되엇다 나는 꼭 同島의 獨立保全을 爲하야 關係各國을包含한 多邊的條約을 締結할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illegible]한 後에는 上院에 對하야 米國政府가 率先하야 比島의 完全한 獨立以前에 關係各國間에 條約締結交涉을 開始할것이라는 旨의 決議案을 提出할생각이다 同條約에는 大體 日本、中國、蘇聯邦과 [illegible] 條約署名國을 包含하는것이 至當하다고생각한다

天皇陛下 延岡에 御着

【延岡電話聯合】神都宮崎御駐輦第二日을 經過하옵신 天皇陛下께옵서는 十五日 南九州工業都市延岡에 行幸하옵시기로 午前八時五十分 行在所御出門 略式自動車로써 各供奉員을 거느리시옵고 沿道에 奉拜하는 十萬의 民草에 御答禮를 賜하시면서 宮崎驛으로 向하옵시어 同五十七分御發車 十時三十四分延岡驛에 御着 自動車로 延岡城山中腹에 御着 中田市長의 御先導로 御展望所에 玉步를 옮기시어서 新興工業都市로 힘잇는 發展途上에 잇는 城下延岡市를 約二十五分에 亘하야 御興味 기프시게 御展望하옵신後 同十一時五分 同所御發 十一時十三分 旭베름그絹絲工場에 御着 工場內를 御巡覽하옵신다음 正午 同所 御發 自動車로 延岡驛에 向하옵시어 同七分 御發車 宮崎驛을 御通過 午後四時五十一分 鹿兒島 御着車 同五十九分 大演習時의 大本營으로 定한 縣立第一高女 行在所에 入御하옵시엇다

埃及暴動繼續

千餘名示威群衆 警官隊와大衝突

獨立示威團側死傷者百五十餘名

軍隊出動街頭對峙

【카이로十四日發聯合】아프드黨을 中心으로한 埃及獨立運動은 十四日에 至하야 다시 重大化하야 一千餘名의 示威運動은 十四日早曉부터 손에 棍棒과 木片을 모다 들고 키자로부터 카이로市에 들어가 非常警戒中인 警官二百名과 衝突을 惹起하야 警官은 當初 威嚇的으로 群衆을 解散시키엿스나 畢竟 어떠케할수업시 發砲하게되어 雙方의 多數의 重輕傷者를 내엇다 情勢極度로 緊迫하야 全市에 不安의 氣가 漲溢하엿다

【카이로十四日發聯合】獨立示威團과 英國警官과의 衝突로 示威團側에서 死者四名、負傷者百五十名을내엇다

그리고 카이로市內의 情勢는 一旦 鎭靜에 歸하엿스나 危險은 依然不去하고 埃及軍隊는 카이로市內大街에서 屯居하야 對峙中이다 一方 埃及政府는 獨立運動과 學生騷擾에 鑑하야 十四日緊急閣議를 開催하고 對策을 協議한結果 카이로市內各大學을 休校하기로決定하엿다

學生隊와警察隊衝突

【카이로十四日發電通】昨十三日의 獨立記念日에 際하야 突然勃發한 카이로市內의 騷擾는 아직 鎭靜되지안코 十四日朝 又復 埃及學生隊와 警察官間에 重大衝突이 起하야 學生隊는 一名의 死者와 九名의 重傷者를 내엇다 이에 激昂한 學生隊는 尙今 警察隊와 對抗中이어서 事態는 益益 重大하게되엇다

英國政府彈壓?

【倫敦十四日發聯合】埃及獨立運動의 重大化에 英國政府當局은 深甚한 注意를 하고잇는데 暫時情勢의 推移를 靜觀하고 暴徒鎭壓에 軍隊를 派遣하는것은 一切 避하기로 決定하엿다 但 호어外相은 最近 英埃兩國이 歷史的으로나 地理的으로나 不可分의 關係에잇다는 旨를 强調하고잇스므로 獨立派의 憲法制定要求에 對해서는 容易히 同意하지안코 구지 彈壓策을 取할것으로 解釋되다

英國總選擧戰

政府黨依然優勢

◇勞働黨도大進出

【倫敦十五日發聯合午前一時十六分發聯合】英國의 總選擧는 十四日午後九時부터 着着 開票되는中인데 十五日午前一時現在의 開票로는 議席의 數百六十四中 政府黨은 百八議席을 占하야 依然 優勢이다 但 勞働黨도 反對候補의 議席二十六을 奪回하야 一九三一年一月의 慘敗當時에 比하면 非常한 進出이다 그리고 十五日午前一時現在 各派의 當選數는 如左하다

政府派	一〇八
保守黨	一〇一
國民自由黨	七
反對	五六
自由黨	一三
無所屬	一

外相、藏相再選

【倫敦十五日發電通】호어外相及 첸버렌藏相은 各各再選되엇다

無競爭當選者內譯

【倫敦十四日發聯合】볼드윈首相以下四十名의 無競爭當選者內譯은 如左하다

政府黨	二六
反對黨	一四

五全大會正式開會

萬般準備一切完了

【南京十四日發聯合】十四日午前九時부터 열린五全大會第二次準備會는 中國及各地代表者로부터 蔣介石、汪精衛、閻錫山、馮玉祥、鄒魯等二十三名의 主席團을 組織하야 大會에 對한 準備를 完了하엿스므로 準備會를 閉會하고 드듸어十五日午前九時부터 正式大會를 開催하기로되엇다 그리고 目下中央委員의 選擧는 自派에 有利하게 하려고 猛運動을 行하고잇는中이다

避難民으로 上海大混亂狀態

【上海十四日發電通】上海市政府當局이 發한 安民布告는 何等의 效果업고 도로혀 流言에 益益 不安을 生하고잇스므로 日本陸戰隊當局은 嚴重히 監視中인데 右는 結局 北中獨立에 拍車를 加하는 結果가 되엇다 十四日夕刻부터 租界北部吳淞閘北方面의 中國人 避難民은 漸次 그 數를 더하고 또 一方 中國人街는 夕刻初 부터 모다 店舖를 閉鎖하야 街路에는 避難民이 家具其他를 추럭 黃包車等에 싣고 右往左往하야 非常한 混亂狀態를 呈하고잇는데 此等 中國人避難民은 모다 佛租界方面으로向하고잇는데 그數는 益益 增加하야 끈칠줄을 몰르는 狀態이다

殷同氏辭表提出

【北平十四日聯合】北寧鐵路局長殷同氏는 十三日 北平發 南下하엿다 氏는 出發前 鐵道部長에게 辭表를 提出한것이 判明되엇다

抗日『傳單』撒布

臺灣返還要求等

漢口一帶의排日氣勢

【漢口十五日發聯合】武漢三鎭一帶에 反滿傳單이 撒布되엇다 傳單의 排日機運은 過般來 俄히 重大化를 傳하게 되엇는데 十四日夜 漢口中人街에 多數의 抗日傳單이 撒布되엇다 傳單은 東北失地回復 外國租界回收等을 要求하야 如左한 議項을 들엇다

一、東北四省을回復하라
一、各外國租界를 回復하라
一、關東州를 返還하라
一、臺灣을 返還하라
一、日本陸海軍은 速히 中國領土로부터 撤退하라

【漢口十五日發聯合】抗日反滿傳單의 撒布는 國民黨의 所謂 안것이 明白하야 日本總領事館에서는 事態를 重視하고 目下慎重對策을 考究中인데 近近三浦總領事로부터 湖北省政府에 嚴重抗議를 發할것으로 보인다

데마百出로 公債市場大動搖

【上海十四日發聯合】日中兩國關係緊迫에 伴하야 流言은 드듸어 萬하야 日本政府는 南京政府에 最後通牒을 投擲하엿느니 日本軍艦三隻이 到着하엿다는 等의 데마가 百出하고잇는 現狀으로 十四日도午後의 公債市場은 北中獨立說과 日中兩國軍衝突說로 五六 [illegible]

元老院 一時大 [illegible] 示하는等 人心은 洶洶한바잇다

急遽歸國

기울기스二世陛下

【倫敦十四日發聯合】希臘帝制復活에 關한 人民投票로 希臘國民의 總意에 副하고저 英國에 亡命中이던 기울기스二世는 故國에 歸還하야 親衛國家에 奔走하려고 十四日 午前十一時 巴里經由 아데네로 向하야 歸國의 途에 오르시엇다 驛頭에는 욕公、켄트公等多數顯官이 御見送하엿다

八面鋒

◇ 比島共和國 初代大統領 就任式 今日、盛大히 擧行、

◇ 一萬五千弗을 드려 맨든 스탠드에는 마뒤、떼等 綺麗將星이 가득히 찻섯고

◇ 街頭에는 十五萬의 群衆이 祝賀行進을 하야 滿都 祝賀의 氣分。

◇ 그러나 이것을 거지獨立이라하야 反對의 聲을 올리는 아기날드一派、그 意氣야 愛蘭自由國成立當時의 데、발레라에 比할수도 잇스나、

◇ 발레라는 아즉 젊엇섯고、아기날드는 이미 古稀를 바라본다。아기날드가 발레라의 成功을 바라기는 多少 疑問。

◇ 埃及서는 英國打倒를 絶叫하고 獨立을 示威。

◇ 自意거나 使嗾이거나를 莫論코、英의 弱點을 엿보는것은 埃及의 熱眼。

◇ 結局 어린애와 政治는 울어야 待遇가 나지니까。

◇ 英國總選擧의 結果 續續 來報、볼드윈은 無競爭 當選、호어、첸벌렌等 保守黨領袖等도 無競爭當選。

◇ 勞働黨도 前回보다도 나흔것은 事實이나 勝利는 無望、自由黨은 사뭇엘까지 落選된 形便。

海軍軍縮會議와그前途

海軍縮減方式은 質量兩方面으로

(二) 雲崗生

그러면 海軍軍備를 縮減(又는制限)하되 어떤 方法으로하느냐? 하는 方法問題부터 說明하자。海軍軍備란 무엇이냐하면 簡單히 말하면 軍艦에 大砲를 備置한것이다。勿論、사람이 잇지마는 理致와 또는 實際로 보아 軍艦을 制限하면 거기 따라서 사람이 制限될것이니까 人員(軍艦乘組員)의 制限은 問題될것이 업다。따라서 海軍軍備를 制限하는데는 그目標가 軍艦의 制限과 이에 備置된大砲의 攻擊力을 減殺시키면 그만이다。그러면 軍艦及備砲를 制限하는데 어떠한 方式으로 制限하느냐?하면 이에는 量的制限과 質的制限의 두가지 方式이 잇다。

◇ 量的制限을 말하면 그目標가 常識的으로 말하야 結局은 軍艦의 總數制限을 意味하는것이나、一步、進하야若干、專門的으로 생각하면 每一隻에 對한 排水量如何(軍艦噸數如何)를 못지 안코 漠然히 隻數만 制限하는 날이면、그結果、隻數를 條約의 數대로 마추면서 남보다 優勢를 取하겟다는 各國은 宏壯히 큰 軍艦、噸數가 만흔 軍艦을 만들수만 잇스면 만드는 弊端이 생길것이다。이것은 單純히 空論的机上論이 아니라、事實에 잇서서 華盛頓海軍條約以前에 잇서서는 列國은 大艦主義를 가지고 서로 競爭하든것이다。그러기때문으로 各國이 가질 軍艦의 數를 制限하는 가장 有効한 方法은 軍艦의 排水量(噸數)을 制限基準으로하야 一國이 가질 總噸數가 얼마라는 式으로 制限하는데 잇다。그러면 各國의 軍艦建造는 指定된 總噸數內에서 行할것이니까 隻數는 自然、制限될것이다。이것을 簡單히 말하면 噸數의 制限은 隻數制限을 必然的으로 隨伴하나、隻數의 制限은 噸數의 制限을 隨伴치 못한다는 意味에 잇서서 海軍軍縮의 量的制限은 隻數制限主義를 取치 안코、噸數制限主義를 取하는것이다。그러면 이에따라서 各國軍艦의 隻數가 制限될뿐아니라、間接的으로 軍艦에 備置되는 大砲의 數도 制限되는것이다。

그러나 一國의 總保有量 即 噸數를 制限해 노코서도 單艦噸數와 備砲口徑을 制限하지 아니하면 그 弊害는 또로 [illegible] 軍艦 고래(鯨)가튼 大砲가 出現할것이다。그런데、洋上의 實戰에 잇서서는 軍艦이 크면 클사록 또 大砲도 크면 클사록 攻擊力、防禦力의 두方面이 다 偉大한것이다。現在에 잇서서는『戰艦』一名 主力艦이라는 놈이 第一로 單艦噸數가 만코、따라서 第一로 큰軍艦인데、實戰에 잇서서는 다른 어떠한 種類의 海上軍艦도 主力艦에 對抗할수업다는 一事만보아도 斯間의 消息을 알수가 잇슬것이오、또한 이것의 有力한 證據로는 前述한바와 가티 華盛頓條約以前에 잇서서는 各國이 서로 競爭해 가면서 大艦巨砲를 建造하고잇든 事實만 보아도 알것이다。

軍縮의 目的은 攻擊力을 減殺하는데 잇다。그러나 各國保有의 總噸數를 制限하고도、單艦噸數와 備砲口徑을 制限치 아니하면 大艦巨砲出現의 弊害가 생길것이다。所以로 이미 量的制限이 잇고도 다시 單艦噸數와備砲口徑의 制限을 目標로 하는 質的制限이 잇는것이다。以上으로 알바와 가치 海軍軍縮의 制限에 잇서서 量的制限이란 各國의 保有總噸數(總保有量)를 制限하는것이오、또 質的制限이란 各艦種軍艦의 單艦噸數와 備砲口徑을 制限하는것을 意味하는것이다。如斯히 海軍軍備는 質量兩方面으로 制限해야 비로소 兩兩相俟하야 制限의目的을 達할수가잇다。

그리고 華盛頓、倫敦의 兩海軍條約은 質量兩方面의 制限方式을取하야 華盛頓條約은 主力艦及 航空母艦을 制限하고、倫敦條約은 巡洋艦、驅逐艦、潛水艦等補助艦을 制限한것이엇다。그러고 單艦噸數를 制限한다는것은 例하면 主力艦가트면 每一隻의 排水量은 三萬五千噸을 最高限度로 한다는것 가튼것을 意味하는것이며、또 備砲口徑을 制限한다는것은 例하면 亦是、主力艦에 備置될 大砲가트면 大砲의 아가리(口)의 直徑기럭지를 十六인치(吋)以上으로 해서는 못쓴다는것가튼것을 意味하는것이다。그러고、이意味를 專門用語대로말해보면 前者는『單艦基準排水量은 三萬五千噸을 超過함을 不得함』또 後者는『備砲口徑은 十六吋(四百六耗)를 超過함을 不得함』이라고하는것이다。(繼續)

クボタの ディーゼル機關 石油發動機
日英米獨佛伊 特許 クボタアーク式
農林省認定品
商工省指定優良國產品
(呈送獻文)
總代理店 杉山商店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二五
電話本局長 882番 4784番
本店 大阪市西區立賣堀南通町二丁目
電話新町 901・902・903・904・3127
支店 東京・名古屋・神戶・大連・奉天・臺北 札幌・八幡

蛔虫빼는데 맛잇고잘듯는 산독이 날과자 珊篤尼涅菓子
蛔虫이寄生하야배가알코고몸이나고가슴이 알코고애들이밤에울고안자는때는 산독이날과자 珊篤尼涅菓子를먹이시오
全國各藥店에잇슴
吉崎大海堂 セメンシ菓子

農林省審査甲位入選 カナミツ發動機 重油・輕油
籾摺機의王座
特長 歯車チェンベルト를使用치안음 馬力은적어도能率은크고 故障絶無
其他ゼットクボタ發動機及部分品 瑞光式神和式籾摺機特約販賣元 エノモト重油燃焼機 在庫豐富 型錄進呈
朝鮮總發賣元 森田商會機械部
京城府大倉町四丁目十八番地 電話本局長六五六番 振替京城三四四七番

農林省御推薦 가도다 石油發動機 農工業用 型錄進呈
合資會社 我商會本店 京城府太平通二ノ五八 電話本局(2)三五六八

長生不老도 陽氣가 조아야! 大業成就도 陽氣가 조아야! 陽虛한 男子는 生不如死다! 速히 이―樺太廳官營採取品인 眞品 海狗腎 을服用하라
本品은 補精腎氣强壯에 神秘的靈效가有한바 北洋寒帶地方의 產物을 樺太廳에서 官營으로 捕獲하야 同廳水產物檢查所에 嚴正檢查證明한 世界的高貴의 眞品이라 一服하시면서 그神効를能히 精量할것이외다。(求服을願하시는분은說明書請求次第곳進呈함)
發賣元 合名會社 大洋貿易社 釜山府本町二丁目二番地ノ三 電話長一二九番 振替釜山七九二三番

문등병 同病으로多年辛苦하는분은本堂에서 功能本位의家傳藥有하오니 病理說明書及服用感謝狀添付하야 郵送할터이니 申込하라 大阪市新川三丁目六五五 大福堂

五週年記念特賣(責任保證書付) 特許 三成 금비녀 特價提供
發賣元 三成堂 京城鐘路大廣橋 振替京城五八四四番 木浦務安通三 振京七六六八番

지구표 ◇總고무 靴와 운동화・싱・론 다비 其他各種 ◇高級고무
品質保證 都散賣
防寒靴는『지구표』가第一이오
朝鮮고무工業所 京城府永登浦町一丁目八八 電話本局(2)五五七三四一

自轉車用 グレート印 루도사링푸스
類似粗惡品이있사오니商標에注意
商標 Great
軽快 堅牢
全國自轉車店에잇숨
神戶 山本サドル株式會社

中央館 永樂町 電本三二
十四日より當堂大公開の大巨篇 新興キネマ東京撮影所超特作現代劇 大阪朝日新聞連載 片岡鐵兵原作 貞操問答以來の鈴木重吉監督 [illegible]
オール トーキー 花嫁學校
立松晃・南部章三、田中春男、歌川八重子、小宮一晃外總出演
文壇の一異彩片岡鐵兵氏が東西朝日新聞に連載近代女性の感覺を捕へて如何なる過程を經て家庭の婦人になつて行くか處女から花嫁へユーモラスな青春譜を描く新興キネマ本年度代表作
メトロゴールドインーヤ社超特作 リチャードロワソン監督 ロバートヤング ウオーレスビアリー主演
空の軍隊
モーリス・オサリヴアン・ルイズ・ストー共演
親子二代續りて空の勇者になるに孜ぐま一い父親の努力、化學戰空中戰の妙味を如何なく發揮したる最近驚異の大空中ローマンス來週封切
片岡千惠藏の情熱の不知火 コロマビア映實も樂しく

東洋劇場
十一月十三日(水)부터四日間 開館滿員謝恩奉仕週間 每日晝夜二回興行 午後一時 七時 謝恩各階絶對均一料金 一等大人二十錢 小人十錢 二等大人十五錢 小人[illegible]
悲戀의스파이
[illegible] 主演
寡婦人의悲愛
次週豫告 紐育의口笛 十卷 南歐橫斷列車 九卷
竹添町一丁目 電光3三五

被害者從弟가 突現
警察이 發表한 身元을否認
屍體寫眞보아 從兄은 無疑나
氏名、年齡、前科는 判異

巡查와格鬪致死窃盜
身元問題에 重大疑雲

지난구월십일새벽 부내서대문서(西大門署) 관내인죽첨정(竹添町)삼정목극회장(金彝莊)안에잇는합선일(辻善一)의집에서절도할목적으로 그집창문으로 드리가려는자를 붙심검문하든 서대문서 니자안정(尼子安正)(二八)순사에게 칼을가지고 덤벼드럿다해서 찾은 칼로 그범인된다는 사람을찔려 죽인사건은 그후검찰당국으로부터 직무상 정당방위라해서 검사국에서도불기소에부쳐 바린것은 아직도독자의기억에새로운 사실이려니와 이사건이잇슨지 만두달이넘은 오늘에이르러 놀라울만한 중대사실이 꿈밧게발생이되엿다

즉십오일아침 열한시쯤되여부내본정서(本町署)사법계에 함남 신창역(咸南新昌驛)에 연부로잇다는 한상순(韓尙淳)(三三)이란사람이 부내 방산정(芳山町)일번지 한방의 김룡근(金龍根)(三七)씨를 찌해 차저와서 압서적은 서대문서원과 격투하다가죽은 김창선(金昌善)(三三)이가 자기의 사촌형되는 박상구(朴尙九)(三七)와 갓다는 풍문이잇스니 겨시할 당시의 사진을 보혀 달라고하여 마츰 그서에서는 신원수배바들때 보관해두엇든 수배서와아울러 사진을보혀주엇는데 이것을본 박상순은 손에이것을 바러들자마자 확실히 자기사촌형 박상구에 틀림업다고 눈물에어린 눈과 울음에 떨리는목소리로 고백을햇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생긴다즉사건당시 경찰에서는 피해자의본적은 원산(元山) 성명은 김창선 나이는 쉰두살에 전과 이범—이러토록 뻣하게 조사판명이 되엿든데불구하고 박상순은어되지까그사진의주인공은일홍이박상구 나이가 마흔아홉살 태생이 북청(北靑)그리고 전과는한번도업는 무고한사람이라고 잘려말햇다

그러면 어찌된일인가? 경찰에서는 사건발생당시에 그신분을알길이업섯슴으로 경기도지문감식과(鑑式課)로 죽은사람의 지문을넘겨서 지문대장과 대조한결과 확실히 전과이범의 김창선에신두살로 단정을내려서 그리그리 사건을 단락지은것인데 사건발생후 두달이넘은 오늘날 태생도 성명도 나이도 전과도전연틀리는 딴사람이라고 나타난사람이 잇스니 이일이 어찌된일인가? 사건은 자못 중대하고도『멜리케—트』한커다란 의문의장음쇠에 잠겨잇다

財產도五千餘圓
二個月前에失踪
十餘年前에北靑으로부터上京
檥鏖經營튼朴尙九

별항보도와가티 뜻밧게 나타난 사촌형되는 박상순이란 사람의입에서 알려지게된 의문의 주인공 박상구는 어떤사람이엇든가? 그는십여년전에 그의안해와 맛사남매나되는 아들딸을 울려리고 자기고향인 북청군청해면 어포리(北靑郡靑海面魚抱里)로부터 서울로 올라와서 부외한지면신당리(漢芝面新堂里)일백칠십이번지의 오십일호에 살며 부내팔판동(八判洞)어떤곳에서 리효진(李孝鎭)이란 사람과 동사로 장전(檥鏖)을 경영하고 잇은 사람으로 자기고향인 북청과 강원도(江原道)모처에약오십두락의 전답을가지고잇서 매해 오십여석의 추수를바더 그것으로 생활을 풍족하게하고 사려온든사람이라한다

그러데 이사람은 자기집생활이 본시풍족햇든니만치 술을입상질겨서 만히먹든터로 지난음력팔월십이일밤엔 자기친구되는 사람을 부외아현리(阿峴里)쪽으로 차저보려간다고 나간채 이날까지 도라오지안홈으로 그가족들은 갑작이 의문의실종이된 가장(家長)의 거취를 몰라서 밤낫으로 기픈비애에 잠겨나려오든중 몃칠전에 별항 방산정사는 김룡근씨가 평소부터 자기약방에 놀러오든친한사람이 한번나간후 이날까지 도라오지안는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데다가 겸하여 지난번 서대문서관내서 생긴 참변의주인공이 박상구와 비슷하다는 풍문을 듯고서 의심적게녁이여 허허실실로 박상구의사촌되는 압서적은 박상순에게알린결과 오늘아츰에 그처럼 서울로그진가를알려 급히달려온것이라한다

前科當時에 變姓名안햇나
指紋對照에는틀림업다
刑事課一見警部談

사건당시에 죽은사람의 신원조사를 위하야 지문(指紋)검사에 당하엿든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刑事課) 이견(一見) 경부는 이 의문의 호소에 대하야 아래와가티 말한다

죽은사람의 지문(指紋)을 찍어가지고 형사과에둔 전과자 지문 수배매와 대조한결과본적원산부(元山府) 동명이하불명 전과이범 김창선(金昌善)임에틀림업고 또지문검사에 잇는 신체상의 특징이 똑가트므로 죽은사람이 전과자임에는 틀림업다고 생각합니다오직대정칠년에 전과를 범햇슬때에 일홈을 변명을써서 사법당국을 속인것이나 아닌지 그것은 모르겟습니다 어째든 죽은사람이 형사과에 지문을 내사람이것만은 틀림이업습니다 운운

틀림업는내兄
前科가다무엇
朴尙淳談

별항 놀라운 통지를 밧고 급히 달려올라온 사촌아우 박상순은 눈물에 어린 얼굴로 침착하게 다음과가티 말한다—

『이붓김룡근씨를가르키면서』이 천만뜻밧게 알리여 주서서 넘어도 놀라운고례 어제밤 꽁무(公務)를 다 재처노코 뛰여올라온것입니다 본정서에서 사진、서대문서에서 가젓든 물건들을 본 결과는 틀림업는 나의 사촌형입니다 나의 사촌형이 절도혐의로 순사에게 칼질을 하다가 찔려죽엇다니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정신이 얼떨떨합니다 만야 그러케 나분 일을 하다가 죽엇다면 웨? 성명태생 나이들이 모다 틀립니까? 더구나 전과 이범이라니요? 천만에그런일은 목숨기내기하고라도 업다고 단정하겟습니다 허물이잇다면 술을 과히 마시는것뿐 그밧겐아모 허물잇슬것이 업는사람입니다 아모려튼 이사실을 밝혀가지고 어찌하든지 하겟습니다」

遺物과寫眞을
對質結果符合

죽은사람의 사촌박상순은 서대문경찰서 사법계로 차저와서 죽은사람의 사진을 뵈여달라하므로 사진을 뵈엿든바 확실히 그의 사촌형인 박상구(朴尙九)(三七)라하고 다시 경기도경찰부 형사로 보내여 죽은사람의 의복과 구두를 뵈엿든바 역시틀림업다고하엿다

그래서 서대문경찰서에서는경성부청으로 교섭하야 그시체를 내여주기로 되엿다

오래된前科라
親戚도모를듯
西大門署의推測

그런데 그죽은 사람은 경긔도형사과 장부에는 전과이범 김창선(金昌善)이고 그나이는 오십일세로 발표하엿는데 이번에 차저온 그죽은사람의 가족들의 말에는 박상구(朴尙九)로 나이는 사십구세라고하야 서로 틀리는것이 의문인데 서대문경찰서에서는 그죽은 사람이 오래스동안 객지에 도라다녓고 현재 신당리에 잇는 죽은사람의 안해는 후처로 칠년전에 소레결혼하엿다한즉 그전처에 중역을 두번치른 사실을알리가 업슬것이며 본적과 성명이 틀리는 것은 죽은그사람이 경찰서에서나 재판소에서 변성명으로 거즛자백을한탓인지도 알수업다고 보고잇다

行旅病死七十四名
棄兒가九十四名
失踪收容兒百二十名、孤兒百七十餘名
四月以來大京城의灰色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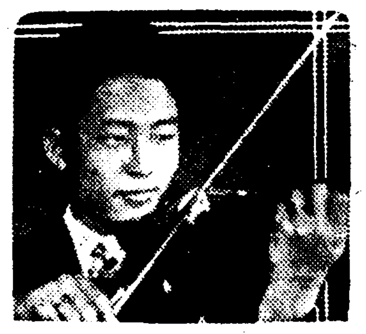
번영을 노래하는도시의 그늘에는도한포도(浦道)를방황하는 인생의서름도가지가지다

이제 지난사월일일부터 이달십사일까지 경성부내에서 인생암로의 의지업는이로종로길가에서마즌 행려병사자(行旅病死者)가일흔다섯명 대지를벼상으로 하고 아른행려병자가이백사십오명이다

또 나면서 부모들의 불의의최거나 흉이습도더이나 가난의애매한 책임을지고 거리에버리운 기아(棄兒)가 구십사명이오 아버지도 엄마도 모르는 고아(孤兒)가 일백일흔두명 이엿고 길거리에 나와다가 집으로도라가는길을일코 곳곳내진을차저가지못하고만 아히가 일백스물여덜명이고 정신병자가 마흔명이나엿다 그중에서 행려병자는 부사회과(府社會課)의손을 거처원정(元町)이정목십이번지 불교자제회(佛教慈濟會)로 보내서 치료를 바덧고 기아와 집일흔아히들 중에서남아들은옥천동(玉川洞)일백오십륙번지 경성보육원(京城保育院)으로 그중 녀아들은 시내삼판통(三坂通) 삼백칠십번지 경창보육원(鎌倉保育園)으로 그러고 고아중에서 좀 부량한편의 일흔네명은 명진사(明進舍)로보내서 길르게하고 잇다고한다

이대부분 일홈도성도 모르는아히들은 부사회과에서 적당하성과일홈을 지어주엇는데 그러니까 수업는 가짜로지은 리씨 김씨 최씨가 각각 그수용소에서 원조(元祖)를 준비하고잇는 세음이다

獨逸音樂校教授로
桂貞植氏에招聘狀
歐洲音樂家로最高榮譽인"윗"校教授
藝術朝鮮의氣焰萬丈!



조선이나흔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독일서 십여년동안의 정공을하고 지난삼월일에금의로 환향한후 당시부사주최로 귀국후첫공연회를 소개하야 만도음악팬들의 절찬을바든 계정식(桂貞植)씨는 그후 동경으로건너가 지난달 십일일에는 그곳일비곡(日比谷)공회당에서 이천여명 청중앞에 당당한대공연회를열어 동경악단을진혜(震駭)케하고 지난십이일밤에는 동경AK로부터방송까지하야 일본전국적으로 그 허성적(殊聲的)존재를 더욱빗나게한바잇섯는터에 금번에는 돌연히 그가 졸업한 독일 뮌헨음악학교로부터 정중한 교수초빙장을 바덧다고한다

전기 뮌헨음악학교는 독일에잇서서도 가장 력사가 오랜음악학교로 전구라파에서도 굴지하는 음악학교인바 이학교에 교수로입명되는것은 음악가로서 최고의영예로 녀이는 귀중한 지위라고한다 지금까지 조선인으로서는 물론 동양인으로서 구라파에잇서서 권위잇는 음악학원에 영예의 교수자리를 차지하게된것은 씨로서 처음되는일로 예술조선으로서 마참의긔염을토할만한 경사임에 틀림이업슬것으로 씨가 이초빙장을 밧고 즉시로 독일로 부임하게될런지 혹은 조선에잇서서 이방면에 진력할런지는 아즉 보류하고잇다고한다

(사진은 계정식씨)

再犯防止目標로
免囚保護大施設計畫
協會資金五十萬圓을募集
全朝鮮的으로着手

조선안에잇서서 형무소수용범죄자는 루년증가의경향을보여 최근에이르러는 사상범죄자보담 생활선우에 범죄가증가하는형편이라고한다 이와동시에 형무소내에서 성적에따라 가출옥의특전을받는자도 점차증가되는 경향을 다음과가티 보이고잇다

▲昭和五年 七八五人▲同六年 九〇七人▲同七年 八九三人▲同八年 八五七人▲同九年 一、〇三八人

그러나 가출옥자와 석방된자로서 한번사회에나가드라도 전과자이란 락인(烙印)이 미리서 사회의냉대를밧고 재범하는자의 대부분은 절도 사기가튼 생활에서 궁핍에 쪼들린 나머지에할수업시 그리케 되는것이 탐중되어 법무국에서는 그들 면수자의 보호구출을 하기위하야 경성, 대구, 평양의 각 복심법원 관할구역마다『사법보호사업연구회』(司法保護事業研究會)를 설치하고 구체적 대책을 연구중이엇는데 맛침 각지방의 구체안이 대략 정리 되엇스므로 명년봄 일측이 법무국에서 그연구 현의회를 개최하고 전조선적으로 크게면수보호의 사회사업을 착수하기로되엇다 그런데 법무국에서 모힌 각연구회의 대강을 종합하면

一、京城에 司法保護事業協會本部를 設置하고 各地에 그支部를둘것

一、協會資金은 五十萬圓으로하고 公共團體其他一般有志의寄附에依할것

一、協會의 事業은 釋放者뿐이아니라 [illegible]犯의 犯罪者、不良少年의 轉向教導職業斡旋으로할것

등이다 현재 전조선의 범죄피해가 매년팔백만원의 거액에달하여 잇슴으로 그재범방지에의하야 그액을 절반만추리더래도 협회설립의 목적은 도달될것으로 볼수잇다고하는것이다

김장沙汰난京城
麻浦、龍山에每日五十餘隻식
白菜菁根배가蝟集

【京畿】금년도 가을김장시세는 근교의 배추(白菜)와 무(菁根)가 지난번 수재(水災)로 말미암아 례년에 비하야 상배가량이나 감소한 상태이므로 그시세도 월등히 빗싸서 아즉까지도 김장못한 사람들이 태반이나되는모양인데 근교의 배추와 무가 이와가티 흉작이되여 시세도 빗싸다는 소식을 드른 지방채소상들은 또한 때를 용하려고 지방에잇는 배추와 무를 잇는대로 함바사서 철도편으로 또는 선박편으로 이러케 서울로 부치고잇서 삼사일전부터 경성역과 룡산역은 무와배추로 대번창을이루고잇는데 또 마포(麻浦)와룡산두포구에는 매일김장배가 사십척내지오십여척을여 드리 도리허 례년보다 풍득한 과잉(過剩)상태를 이루어서 시세도 또한 월등히하락하야 배추는 매통에 상품이사전이요 보통이삼전이전을 보고잇는데 무도도한 한집에일원오십전의 큰렴가를 부르고잇서 흉작이라는 금년김장이 도리혀 풍년때보다 더싸므로 불안중에잇게되엿든일반은 이마살을 펴는현상이다

"森信汽船"事件
漸次로擴大?

【江華支局電話】그간 상신긔선주식회사 인천지점장대리(森信汽船株式會社仁川支店長代理) 서씨(徐氏)를 사긔횡령혐의로 취조중이든 강화경찰서사법계에서는 지난십이일 서원세명을 인천에출장식혀 그회사장부를 가저다가 자세히 금전출납관계를 조사하는일방 십오일아침에는 여덟시부터 읍내모조합리사와 모회사사장을 증인으로 불러다가 문을굿게닷고 열두시까지 심문을 계속하엿다

鍾路三丁目敬老會

부내 종로 삼정목 동회(洞會)에서는 오는 십륙일 오후 두시부터 그동리에 사는 팔십세이상 로인 리씨(李氏)이하 세명을 위하야 경로회(敬老會)를 십오개년이상 근속정원 일곱명을 위하야 표창식(表彰式)을 관수동(觀水洞) 화광교원(和光敎園)강당에서 열게되엿는데 일반동회원은 만히참석하야주기를 바란다 한다

金知泰氏追悼會

재경청우회(在京靑友會)주최로 오는십칠일(일요일)오후두시부터 부내수표정(水標町) 조선교육협회회관안에서 고만포김지태(故晩圃金知泰)씨 추도회를 개최키로되엿는바 회원및일반인사는 만히 참석하여 주기를 바란다고한다

奉天某煙草工場
共產運動을默認

【奉天十四日發聯通】봉천에 공장을둔 모국연초공사(烟草公司)는 직공가운대에 다수의 공산당원이 잇서서 무슨책동을하고잇는것을 묵인하는 형적이잇다 더욱이 최근에 특군특무긔관(特務機關)의 알선으로 백계(白系)로서아인협회가 설립되매 그연초공사에서는 이협회에 참가하는 사람은 즉시 쪼처내여 버리겟다는 선언을하는등의 기괴한행동을 하고잇스므로 일본 만주국 군부와 경찰에서는 그연초공사의 태도에 의혹을품고 단연히 배격할 결의를하고 가만히 조사중인데 어떠한 강경한 수단을 취하게될것으로 예상된다

天氣豫報
曇後晴

朝鮮 低氣壓은 木浦압바다와 東海中部에잇서 高氣壓은 滿洲와 本州東海上으로 퍼지고 半島는 氣壓의谷이되여 氣流는不安定하다 滿洲는晴、南滿과 北朝鮮은曇、中部以南九州北部까지는雨、日本內地는曇天 東北地方以北은 處處에小雨

昨日 最高 九度三 最低 一度八

今日 正午 九度一

教練查閱中
疑問의少年負傷
彈傷與否가問題

【新義州】지난칠일 신의주중학교교련사열(中學校教練查閱)당시 사변생의 전투(戰鬪)교련중 전방에서 구경을하고잇든 부내미륵동(彌勒洞)일백십오번지 박룡택(朴龍澤)(一三)이 돌연 혼도되엿슴으로 달려가 조사를 하여 본바 후경부(後頸部)에총탄(銃彈)의 참상이잇슴으로 곳 부내 로송정(老松町)청산(靑山)병원으로 데려다 응급수당을 가하엿는데 그후 학교측의 태도가 돌변하여 탄상이 안이라고 다시 위수(衛戍)병원의 진찰을 바덧든바 탄상이 안이라는 진찰을나리엇다 여기에 한편에서는 탄상이 분명하다는진단을 나리엿슴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탄상이안이라는 반대의 진단이잇서서 문제거리가되여잇는중이데 흉은 생도가 협착탄(挾搾彈)을어더 호긔심으로 밟사한것으로 추측되여잇는데 학교당국은 다음과가치말한다

전투교련중에 구경하든 소년한명이 혼도되엿은 잇스나 결코탄상은아니라고봅니다。운운

獨逸에遠征할世界올림픽氷上代表

알프스山麓獨逸의 「갈미쉬·바르텐키르헨」에서 明春二月六日부터 열리는 第四回冬期世界올림픽에 參加하는 氷上代表 金正淵 李聖德 張祐植 外四選手는 準備의 마지막고 來二十一日東京을떠나 朝鮮을經由 奉天에이르러 그곳에서 約三週間本格的練習을行한 後 一月三日 滿洲로向할터이라한다(寫眞은 右로부터 白原 李聖德 河村 張祐植 中村 金正淵 南洞選手)

運動競技

梨專主催·本社後援의
華麗한女子籠球
宣川保聖、好壽敎、培花等參加
申請마감은十八日限

梨花女子專門學校主催와 本社後援의 第二回全朝鮮女子中等校籠球大會는 압흐로 一週日을隔한 二十三日밤七時부터 市外梨花女子專門體育館에서 華麗한幕이열리게되엿다 同大會의 申請期日은 來十八日까지로臨迫하엿는데 이미參加한 學校는 멀리地方에서 宣川保聖女學校를 비롯하야 開城好壽敎女高가出戰할터이며 市內에서는 昨年의 優勝校培花女高는 勿論이요 其他各校에서도 參加할려고 [illegible] 케한다

白狗滑氷俱樂部
臨時總會開催

白狗滑氷俱樂部에서는 [illegible] 來十七日午後六時부터 公平洞北京館에서 臨時總會를 열고 다음과가튼 事項을 決議할터인데 部員諸氏는 [illegible] 參席하여주기를바란다하며 會議事項은 다음과 如하다

◇討議事項

一、役員改選

一、迎件

一、本部十週年紀念行事의件

一、[illegible]招聘에關한件

一、第五回京平氷上對抗戰에關한件

平壤籠球經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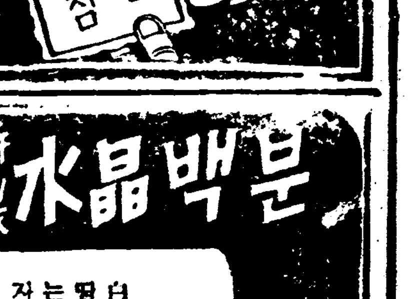
【平壤】平壤 崇實專門學校主催 [illegible] 第三日은 十四日 午後六時四十分부터 [illegible]

高專러비豫選
普專、大醫棄權

遠征中의 大邱醫專과 京城醫專의 對抗試合은 十七日午前十一時부터 龍山新運動場에서 擧行케 되엿스며 十六日午後二時부터行할豫定이든 普專對醫專戰과 十七日의 大邱醫專對高工戰의 二試合은 醫專、豫科의 棄權으로 中止되엿다

崇商軍歡迎戰

[illegible] 十六日에는 全日本中等籠球選手權大會에서 優勝을 獲得하고 [illegible] 歡迎試合을 開催키로 되엿는데 [illegible] 全平壤球團 [illegible] 人氣를 集中하고잇다



特製 리베—루 速히난는淋疾藥
竹村製劑所 大阪市南久太郎町堺筋 振替大阪三六〇番
藥價 二円、三円、五円、十円 全國到ル處ノ藥店ニアリ

學生服散賣
進呈 行商人募集 要至急問議
京城府黃金町二丁目 電本四六九番 三好洋服店

最新式燒許特機 延長機械 金儲 穀物膨脹機 カタログ呈
大阪西淀川區浦江中二 石樫機械製造所

恩給 長期樣低廉立替 他에比較事最有利 信用으로照會 特色多回答
京城府授恩洞一六〇 鄭商會

テーブル(陶汰盤) 搗鑛機 ヤシクラッシャーブレーキ
朝鮮鐵工所 京城スプリング製作所
京城府中林洞239 電話本局 863 三四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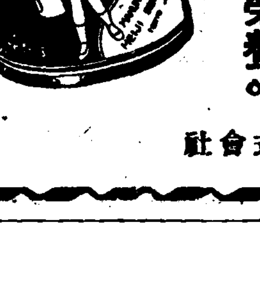
야촌생명 野村生命 本店 東京 支店 京城黃金町二丁目

安心して買へるセイコーシャ時計
セイコーシャ地方時計部

筆生 遠近男女의分別업시 自宅에서 곳되는 趣味와實益具備한 學生婦人女子最適한 永續할副業 詳細는 ...
大阪天王寺北河堀町 盛文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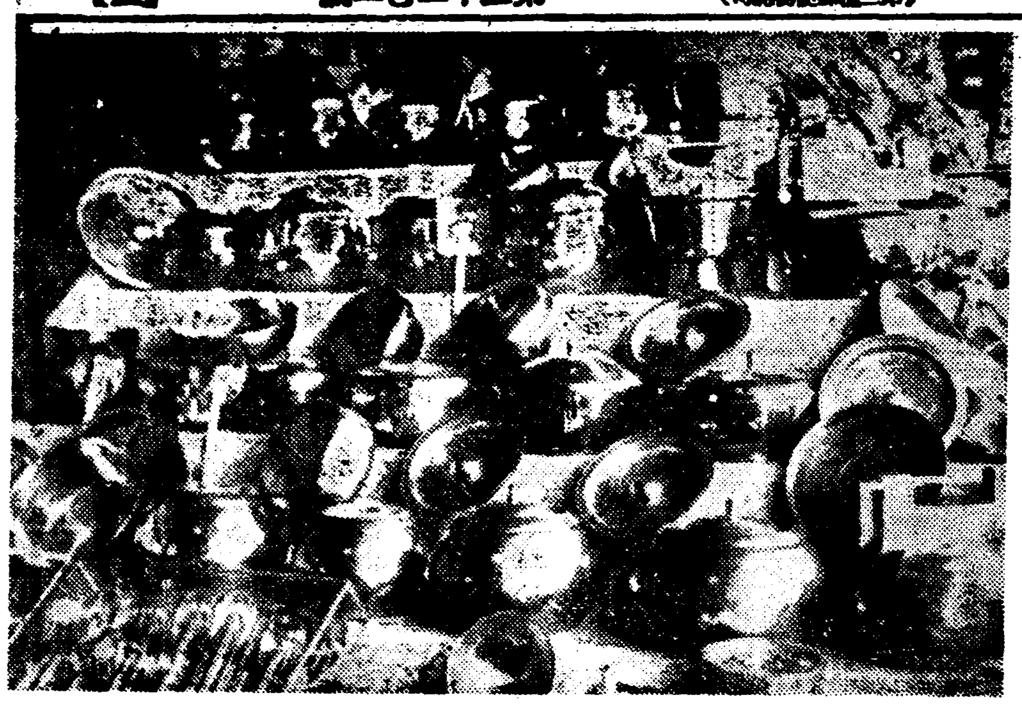
金 白 福 銀 金
東京市下谷區練塀町 株式會社 石福商店
出張所 平壤府旭町

母乳代用品으로써代表的優良品!
明治メリーミルク
메리—밀크



乳兒의哺育에 兒童의保健에 姙産婦의榮養에
理化學研究所 鈴木梅太郎博士 推奬
明治製菓株式會社

特製 분백晶水
白粉刷毛·白粉얼룩·여드름·땀띠·... 定價 五〇錢
松澤ホーサン石鹼本舖 東京·大阪



열두가지반찬보다 배추김치한통

"…당글줄을모른데서야 부인네면목이나섭니갓?"

이만하면 김장人준비는 거의 다 되셋웁니다. 이제로부터는 각가지의 김치며 깍둑이를 맨들기로 합시다.

동침이담그는법

무를 고를때 아조 맵매하고 속찬 것을 따로 빼노시라고 하지 안햇습니까? 그것은 그 매드 말한 바와 가티 동침이를 담글것이엇습니다. 그 무를 먼저 한케 노흔 뒤 생강 마늘 고추등 저미어 노흔 것과 가는동파를 드믄드믄 떠고서 소금을조금뿌리지 안습니까? 그러케 맵케든지 죽 노하 갑니다. 그런데 강유강습 무룸에 통배추를 석거도 조코 사이사이 중간중간 통배추로만 맷켜를 노하도 조흡니다. 단지배추가 넘워 만하서는 동침이맛이 그다지 조치 못할 것이라 재미 틈가 적습니다. 하여 노흘때로 다노치 안합니까? 맨우에는 배추ㅅ닙 우거지를 덥고 다시 정한돌로 눌러노치 안습니까? 그래가 한 사흘 지낸뒤 국물을 부어야 합니다. 그 국물은 조흔 간을 마치어 가면서 붓습니다. 여러가지중에서도 동침이는 특별히 치는 것이만큼 동침이 맛을 버려서는 못 쓰겟 만흔 동침이를 일부러 잘 담그려고 한대자 제일 다른 묘안은 잇지 안습니다. 그저 무를 잘 골르고 간을잘 마추고 또 양념만 알맛게 너흐면 무우도 맛나고 국물도 맛나집니다. 그런데 동침이ㅅ국물을 좀 맛나게 하려고 하실때는 모든무를다저리어 가지고 그 저린물을 물에 타고 간을마치어 국물을 붓는수가 잇습니다 다 간에 우러나보시

국물 로 국물을 붓는 까닭으로 그러하지 그러케부은 동침이ㅅ국은 퍽 시원하고도 달답니다. 그러나 동침이의 딴데로 들어가는 무는 한번물을 빼기때문에 맛이 아조 줄어 듭니다. 동침이ㅅ국만을 위하야 무를 저리어 내다는 것은 좀 생각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젓국지담그는법

무, 강우, 파, 마눌, 생강 (배 밤도 노흐)을 토막처노코 미나리, 갓입 청각, 가울오이지 (낙지, 전복도 노흐)를 통강처노코 실고추도 장만해 노치를 안햇습니까? 그것이 모다 젓국지의 너흘 것이랍니다. 그모든 것을 한데 섞고조긔 젓국을 치지안습니까? 그래서 배추ㅅ속사이사이에 양념을 집어 너흔뒤

더피 는 [illegible] 조긔를 끼워 둡니다. 그리가지고 한다시 사흘 지낸 뒤에는 조긔젓국을다려서 시켜가지고 물에 타는통 시 간을 마치어 국물을 붓습니다. 조긔젓국을 대리지 안코 부어서는 나중 비린내가 뭇시 나고 또 끌는 것을 그대로붓다가는 김치를 버리기 쉽습니다 어느의미로 보아서는 김장의 대표 가이 젓국지라고 할수도 잇습니다. 동침이보담 더 한층 잘담거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첫재 배추도 조하야하겟지요만은 무엇보담도 양념이 갓고 조긔젓국이 맛나야 합니다. 그이외에는 우의 우거지를 조금 두터이 덥허서 헙어먹기이전 바람이 들지 안토록 하서야 합니다.

[illegible] 배추 한케를 놋흔뒤 무와 배추도 양념을 조금 너코 도소금을 조금뿌리고 따로 병을 옵니다. 그럿이 아니라 소위 비늘김치는 어떠습니까. 비여 노코 그사이에 사이 으로 돌이 놉흔 그 수에다가 양념을 너어 놋습니다. 그리가지고 케를 갈뉘 통배추를 한케 노코 가간이 오이소박이 비늘김치 통조긔를 끼워 둡니다. 그리게 촉부 통배추로 한케와 통배추로 한케를 놋흔뒤 욱어지로 뒤를

엄마가시켜줄 갓난애기체조

약한애한테 효人과적

젓먹이 애기인때부터 일광욕과 체조를 시키면 허약하고 신경질인 체질을 가진 애기에게는 적지안케효과가 잇습니다.

그런데 난지 두달부터 시작하야 일광욕을 적당하게 식히십시요 맨처음에는 일망에 발만 쏘이고 다음은 다리로 이러케 차차 올라가서 일주일 가량될때에몸 전체를 내노토록 하십시요 건강한 애기는 처음부터몸 전체를 일광에 쏘여도 무방 합니다 만은 먼저 말한바와 가티 발부터 차차로 식키는 것이 제일 안전한방법입니다. 애기를 체로 일광이드려오면서도바람끼업는 곳에 요를깔고누이고 놉흔 자외선을 피하도록 가려주십시요 제일처음부터는 오분이나 륙분쯤 식키고 일주일 지난후 부터는 십오분 전후까지 연장을식히십시요 일광의 자외선이 강한때는 오전십일시부터 오후한시까지 인데 겨울철이라도 어린애기에게는 그시간은 너머일광이강하니 오전열시에 식히는것이 적당합니다 나흔지 두달부터 일광욕을 시작하야

그달한달까지는 일광욕만식히고 다음석달될때부터 체조를식히십시요 애기가 자연으로 손도펴고 다리도 움지기는 운동을하는것처럼하되 놀라지안케 조용하게 식히십시요 처음은 다리운

[illegible] 것을 여러번계속한다음 운동을식히되 다 도가상에 [illegible] 으로 오거들지식히고 다 운은 [illegible]

하는 운동을 [illegible] 여러번 두다려주십시요 [illegible] 운동을식히는 [illegible] 이러케 매일 규측적으로 일광욕을 식히는 동시에 체조를 식히면 허약한 피부의 저항력을 강하게하는 것이므로 겨울에 감긔들녀러가 업을뿐아니라 식욕이 왕성해서 발육상 비상한 효과가 잇습니다.

유기그릇은 이런쇠가좃습니다

『안성마침』이란벌서예날말

일반이 유긔그릇을말할때 의례히 안성유긔가 제일좃타고 조라고합니다 그러나 요새와서 큰도시에는 대개큰유긔제조소가 잇서서 거기에서만든것을 일반이쓰니까 안성유기에대한관념은 벌서지나간 옛날일입니다 지금평성안에서도 큰제조소가잇서 이것을 전쟁에서 쓰기때문에 가판매소에서파는 [illegible]

예따라 상하품의 구별이잇게 됩니다 반상긔에도 상품은 중등도나가고 오래쓸수록 빗갈이히고욱이 서지안습니다 상품구별대정한 벌에 상신랑人중이 보통인데 청칠(淸漆)이 스물다섯중이면 상랑(上等)이 당랑중이됩니다 이것은 빗갈히고 손으로튀기면 강철소리가쟁쟁하고납니다 좀 [illegible]

은 빗갈이누르고 뒤겨보면 특 소리가납니다 그런데중 특상품칭은 경은빗치 납니다 반상긔와 세수대야와는 쇠의 종류가다릅니다 대야는 구리쇠와 상랑을반석합하야만듭니다 백통그릇에는 합석(鍚)이 십분지일이드러갑니다 새웅노흔 그릇은 예전에도 쓰든가정에 잇서지요만 대게는 쓰든사람의 요구에따라서 만듭니다 근자에는 백통반상에 새웅을 만히놋습니다 [illegible] 지보편은 반상갓다고요 그릇쇠중에는 대야쇠가 제일조흔 것입니다 유긔는한번 깨트리지면 아주쇠를 녹여서 다시 맨들기전에는 별도리업스니까 대야는 질기고 단단한쇠로만

海外片信

건강을위해서 『웃는구락부』

『건강은 웃습으로부터』 이러한 유래한 주지미레서 최근『체코슬로바캬』의 서울『부라―그』에는 공소구락부(哄笑俱樂部)라는것이 생겻습니다 그런데 이회의회원이 되자면 먼저 이회에서부르는『두견새의 노래』라는 노래를 의살맛게불러야할것과, 자기가 말라깽이면 동동한 회원, 자기가 동동보면 말라깽 이 회원 의 소개를 어더 비로소 회원이될수잇는것입니다. 회비는 무료 일주일에 한번 회원들이 모여서는 말로나 행동으로 가진 포복절도할만한 짓을 하야 서로웃는 것으로 건강을 증진식히자는것입니다 회원은 하로한번은 반드시 웃는소리를 할일 궁상스런얼굴로 회에참여하는 사람은 즉시 제명처분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회는 발회식을 하면서 댓듬 희극왁한풀린을 그회의총재로 추천한다는 추천장을 미국의찬풀린에게 보냇다합니다

家庭醫學

치질

問 십구세이온데 수년전부터 흥문이근질근질하더니 흑뒤를볼때에 잇다금식 피가죽죽씩나와쌋오며 지금도계속하야근질근질합니다 치질인듯하오니 참말치질일까요 또한돈안드는매약으로 고칠수업습니까 자세히하교해주십시요 (福溪一讀)

答 치질에는 틀님업습니다 내치핵(內痔核)인듯합니다 매약에는 여러가지좌약(坐藥)이잇스나 외과적으로 일시적고통은

면할지모르나 전치할수는업스니 근치수술(根治手術)을하시오 (醫學博士金晟鎭)

소변이탁한병

問 이십삼세의남자인데 소변시에 각금 뇨수가탁하며 보통시에는아모 고통이업습니다 그리고 외독×이몹시가려우니그원인과치료법을 하교하여주시요 (市內金蕙洞A生)

答 림질이 아닌가합니다. 그러나 말삼이철저하지못하야 잘알수업스니 좀 자세히 시작과경과를 적어보내시오 (醫學博士 金晟鎭)

음울는데

問 이십세의여자입니다 모중학교재학중 음울흑라 퍽고통이오며 학생들으로 동모들에게북그럽습니다 무슨약을쓰면 속히 낫겟습닛가? 속히하교하여주시요 (平壤 李芳子)

答 미치갈(바이엘)이라는 약을사다가 가려운곳은 물론이요 전신더욱이 소재 발새와겨드랑불두덩가튼곳에 잘 발으지고는 지금까지입든옷은 최다삶어빨고 새옷을입으십시오 이러케 약사흘동안 계속한뒤에 목욕을하고 새옷을 가라입으면 대개와치됩니다 (醫學博士 金晟鎭)

十五日 (金曜)

◇午後六時 管絃樂 DK管絃樂團
◇同六時二五分 文章講座 作文에對하야(一) 李光洙
◇同七時三〇分 法律講話 法律로본人身 辛泰嶽
◇同八時 流行歌 一、곳노래 二、꼿집때 三、빵떠러가세 四、哀想 五、모래벌十里 六、路傍根 七、落花三千 王壽福 伴奏 DK管絃團
◇同八時三〇分 音律 覃山會像

十六日 (土曜)

◇同九時 連續講談 (二) 朝鮮正樂傳習所會員 八十壹科 庚秋岡
◇午後〇時五分 (東) 管絃樂
◇同三時一五分 家庭講座 編物(終)(더스트使用) 指揮 坂西輝信 毛絲
◇同六時 結初이야기 張和順
◇同六時二五分 文章講話 作文에對하야(二) 李光洙
◇同七時三〇分 紀念講演 世界大戰平和克復 申基碩
◇同八時 달거리 一、달거리 二、노래가락 三、도라지타령 四、흥타령 五、양산도 美梅紅 細笛 姜錦洙 奚琴 李忠善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沈清歌 唱 宋秀玉 鼓手 丁元燮
◇同九時 기타와롤루―트
一、西班牙기타―獨奏
(가) 마라게라…타레가作曲
(나) 랑고…메레―르作曲
(다) 볼레로…아르카스作曲
二、플루―트獨奏(기타―伴奏)
(가) 三樂章의小세레나―데…주리아―니作曲 소스레누―로 메누엣토―론도

東大門女普校 兒童作品展覽會

시내 동대문밧 청계에잇는 동대문녀자보통학교(東大門女普校)에서는 오는十六일 오전九시부터 오후五시까지 동교학생작품전람

十一月十六日 (土)

舊十月初十一日 丙申·火·氏·收

◉立冬八日(舊月十二日)
◉小雪二十三日(舊月廿八日)

日 (日曜)

(나) 牧童의피리…篠賀打作曲
(다) 瑞西風小曲…크레멘티作曲
◇午後〇時五〇分 伽倻琴倂唱 一、短歌 二、唱劇調 赤壁歌 雲淡風景 鼓手 鄭太錦 姜弘嵩
◇同一時二〇分 管絃樂(레코―드演奏)
라벨晋樂 一、어릿광대의아츰 세레나―데 (미네아폴리스交響管絃樂團 指揮 오르만디) 二、볼레로(보스톤交響管絃樂團 指揮쿠―세빗키)
◇同六時 하모니카合奏 아르페하―모니카밴드
◇同六時二〇分 日曜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心田開發講話 人間의最高目的 金敬注
◇七時三〇分라듸오…스켓취(A) 入道雜談 (R)世界一週OK 金元浩 李正順 伴奏 DK管絃
◇同八時一〇分 歌詞 一、相思別曲 二、白鷗詞 金花香 安鶴仙 大笒 金永根
◇同八時三五分 報念 一、報念 二、六字백이 三、興打鈴 四、개고리打鈴 卞眞紅 洪素月 大笒 朴鍾基
◇同九時 名曲鑑賞(레코―드)×B B合唱團指揮…로빈손)
『엘리아―』 멘델스존作曲 解說

監 實有利
副業과本業
軍需品으로致富 軍足의製造
[illegible]
大阪市天滿岩井町二丁目 軍足製造元 福積商店

電氣醫療師
最新電話
近日總督府令發布·今回特別資任教授合
學理、實地全科責任養成
●短期卒業、僅小한資金으로 도곽成功한다
●醫師同樣의尊敬과收入을어고一生安樂할高職
卒業生은內地、朝鮮、各地自由開業의資格이잇合法令도發布되려하니入學하려면只今最好時季本院長은斯界第一이름잇는電氣綜合醫術의創始者로서東京電醫學校學長입분이다
朝鮮에서本院以外에는資格잇는養成所는업다 (學則無料送呈)
認可 朝鮮高等電醫講習院 附東京電醫學校實習院 京城黃金町三ノ三四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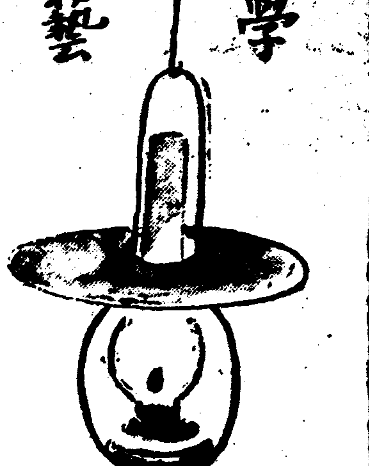
ランチン 란ㅊ직ㅅ구ㅁ ラ는ン란
で참 ン을로광장한人氣다

十一月十三日부터公開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均一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
오―1時 밤七時十五分始映
파라마운트社超特作品 探偵活劇 非常線 全八卷 監督 조셉폰스탄바―그氏 主演 죠지방크롭트氏
世界的巨人大活劇!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누구든지 몰라보아야 알 수 있 무시라!
파라마운트社名監督三人合力作品 戀愛喜劇 百萬弗가지면 全八卷 主演 케리―쿠―퍼氏 작크―오―키氏 차―리―로스氏
파라마운트社超特作品 大都映畫社 現代劇 春よお前は罪作り 六卷 監督 南橋諸兒氏 主演 星ひかる子氏
麻浦桃花洞 電話 三三 桃花劇場

十五日낫부터二回映畫 夜間은藝苑座公演(七時부터)
晝間料金 階上二十錢 階下十錢均一
春江の結婚 松竹蒲田映畫 池田忠雄原作 野村浩將監督作品
近代的明朗과新時代性! 가진喜劇의帝王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몰스토―니監督
쪽김을밧는女子
三重戀愛에難局에其女子에이야기
第一週公演 藝苑座第二週大公演
夜間 興味%에萬人歡迎 歌劇 結婚實八百萬弗 全一幕
業時上演케되는名作品
抱腹卒倒의大喜劇 男女俳優四十餘名의大活躍
仁寺洞 電光三二 朝鮮劇場

十一月十四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時 午後二時 夜七時
M、G、M超特作映畫全日本版
로모 바―드레 스워리 라이언 배리
空中軍隊
世界最大喜劇 M、G、M特作
決死의本壘打
若夫婦試驗期
大每、東日
團成社

學藝



『포-』에 對한 私考
그 環境과 藝術과의 接觸面
④ 柳致眞

○
『포-』의어머니인 『엘리자베스 아-놀드』는 英國女俳優이엿다 『엘리자베스』의 어머니-即 포-』의外祖母-도 亦是 女俳優이엿다 압헤서 『포-』가 一八〇六年에 보스톤市 『메더랄·스트리트劇場』

一興行一 中에 낫다고햇지마는『포-』는巡業中渡米의 期中에서낫다는것이다

『포-』의 아버지는 『엘리자베스』와結婚의關係가되엿後 그의 愛人을 따라서 스스로一座에投入하야巡業俳優의群에 依身한것이다 그리하야 그들이結婚하얏슴적에는『포-』의父은 十八歲포-의母는 十九歲이엿다는 記錄이다

이와가튼 緣由로『포-』도 어머니의젓곡지를물고 巡業群의속에서 漂浪한것이다. 그러다가 一八一一年 『포-』는 兩親에게서 死別當하야 巡業群의孤兒가되엿다는事實은 前項에서도 言及한바와가다.

그뒤에는 多幸히 裕福한煙草商인존·아란헌테 養育은되엿지마는, 物質的苦痛은 그다지업섯스나 그래도『포-』로 精神的으로는 依然히一個의 孤兒이엿든것이다.

『포-』가 이少年時代에 얼마나

一精神一 的孤獨에 고잇섯는지, 주리그를잘說明하는 조혼에피소-드가 잇다.

어느날『포-』는 어느學友에게 따라서 그의집에 놀러갓섯다. 그學友의어머니는『포-』의 손을이끌고 多情하게 마지해주엇든것이다.

『포-』는 어린마음에도 그 多情한接待에 가슴이 메이는듯하야 눈물만 뜨거워젓다.

그는 그때 人生에對한 唯一한希望(愛)-그希望때문에 自己自身을 니젓다

그後얼마안돼서 이夫人은 病死하얏다 『포-』는 큰失望을느끼고, 비가오나 눈이오나 그夫人의墓에 차저가서 彷徨하야집에돌아옴슬을 몰낫다한다.

이이야기는『포-』에對한 학에피소-드에 不過하지마는 그가 少年時代에 얼마나 따뜻한사랑-家庭愛乃至母性愛-에 주리고 잇섯든나는것을 證左하야주는것이다.

이와가티 그는 날적에 벌서 巡業團의

一子息一 으로서『바가본드』의精神을바덧고 放浪의 孤獨에 조름깃슬아렷든데 그時 况且 孤兒로서 以上과가티 家庭的溫情에서 缺乏슴을 느끼고 잇섯스니 그의性格이 正常的으로 發育할수는到底히 업섯든것이다.

그가 常識을짓밟고 現世的인 모든旣成觀念을無視하고 賭博을 즐기고 自暴自棄에 自己自身을 버린것도 全혀 以上과가튼 그의環境이 그러케 만든것이라하겟다.

그러나 어와가튼 病的人物인 『포-』가 그의愛人에게對한 純情에 잇서서는 얼마나 至誠이엿든가? 그戀人이엿든 介-夫人그外에 그의 最後의 愛人인 閨秀詩人 호위스트만夫人에게보낸 書翰을보면 그의心情을 잘 알수잇슨것이다.

『포-』는 過去生活에서나 혹은現實에서 그에게缺如된 그의 唯一한希望인愛情을 發見한 女性에게서 發見하라하얏다。그가 女性을 사랑하는것은 마치 진광치못버러둔 自己의實生活에서 버서나오랴는 발버둥에 不過하엿다。即 그는 實生活에서는

一完全一 히節度를 닛고 잇스면서 그의 精神生活에서는 完美한 節度를 追求하얏다 이와가티 實生活과 精神生活의距離가멀으로『포-』는 二重人格者라고 非難밧는것이아닐까? 그러나 『포-』를 二重人格者라고 욕하는것은 結局포-를 잘理解못하는것이다。

『포-』의偉大한것은 그가 오히려二重人格者인 反面에잇는것이아니랴? 그의精神生活이 實生活을 그만큼멀니 飛翔하야 그의心魂의한구석에서 喪失되고만『에덴』의花園을 차즈랴는데 『포-』의特質이잇는까닭이다。그리하야 이特質은 드듸어 그의作品에 自由스런 空想의世界를開展시킨것이며 恐怖와憂鬱을 심어준것이라하겟다。

文壇異議 (5)
李源朝

그러면 우리는 여긔서 新聞新自由主義文學運動(이말은 鄭氏의 命名한대로 襲用하자)에 對해서 이야기하지아니하면 안되겟다.

鄭氏에 依하면 이 新自由主義文學運動은 우에서도 말한바와가티 政治的

一思一 想的 文壇的 藝術論的 四個動因에서 생긴것이라고 하는데 政治的으로는 第三인터내슈낼과 第二인터내슈낼의 協調的傾向과 思想的으로는 第二世紀末的인 知識階級의 不安과 나치스政策에 刺戟된 모든 流派(나는 鄭氏와가치 다枚擧할수업다)들이 大同團結하는것이며 藝術論的으로는 藝術派와 階級派(이것은 黨派의 朝鮮的名辭이나 氏는 世界文壇에通用하엿다 이밧게도 이와가튼例는 얼마라도잇지마는)는 藝術의 功利性與否로 因해서 오래도록 抗爭해왓스나 인제는 階級派도 社會主義的 리어리즘의 論調로 보아 過去의 誤謬를 淸算하는데에 辯證法的 過程이라고 安價하게 合理化하고 自慰하는데서

一藝一 術論的 接近性이 잇다고한다.(傍點李)

그러면 대체로 新自由主義文學運動이라는것의 發生淵源을 이러한 方式으로 說明할수 잇슬까. 氏는 簡單하게 第二世紀末的 知識階級의 不安이란말을썻다. 그러면 知識階級의 不安이라는것이 現代에와서 무슨때문에 感性的으로 問題가되느냐? 實로 우리가 追求할問題는 여긔에 잇는것이다.

이때까지 보아서 知識階級은그 社會的 生産的意義로보아서 도리혀 過分한優待를 바더온것이 事實이다. 이러한 知識階級이 不安을 늣기기始作하엿다는것은 첫재그 原因으로 그階級이 依存해잇는 그社會體制의 全體的動搖란는것을 들수잇다. 다시말하면『危機』라는것이 이

一社一 會의 가장 根本的土臺인 經濟機構만을 掩襲한것이 아니라 文化의領域에까지 浸蝕되엿다는것이다. 그래서 文化의 危機라는것은 첫재 表現의 自由를不許하는形態로낫하나는것이다. 그럼으로 知識階級이 危機에 다닥드려서 不安을 늣기는것은 다른 階級에 比해서 [illegible]에서도 한번 늣긴 不安을 解決하려고 애쓰는때에는 누구보담도 第一 前衛的인것이다. 그것은 知識階級이 本質에잇서서 小뿌르조아인만큼 直接으로 政治的 또는 經濟的活動보다는 더만히 觀念的인때문에 不安을 늣기는것은 感性的이지마는 知識이란 항상 眞理를 探求하는것인때문에 不安이라는것이 한層의 社會的分裂에서

一由一 來하엿다는것을 알게되며 따라서 그不安에서 解決하자면 무엇보담도 眞理를 擁護하지 아니하면 안되게되는것이다 그러나 眞理의 實現이라는것도 結局은 政治的解決이 업시는 不可能한만큼 知識階級이 한개 眞理의 使徒이라는條件만으로는 아모런所用도 업는것이다. 그럼으로 여긔에서 비로소 自由主義라는것이 現代的性格을가지고 낫하나게되는것이니 自由主義가 現代 知識階級의입에서 불녀지는限에는 이것은 한개의 嚴肅한意味의 主義가 아니고 도리혀 態度인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主義라는것은 무엇 보담도 自律性이 잇서야 하는것이다. 그自體에서 한개의프로그람이 說明되고 또한 그『프로그람』에서 그自體의 行動性이

一規一 定되여야하는것인때문이다. 그러나 自由主義로서 한개의 自由를擁護하고 自由의實現을期하는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政治的으로 解決되는것인만큼 어느政治的行動을하지아니하면안되는것이다. 그때에는 파-시즘이냐? 맑시즘이냐? 그러나 이러케 어느한쪽으로 加擔한다면 그것은 벌서 自由主義라는일홈으로 불녀질것이아니고 파-시즘이나 맑시즘의 어느하나일것이다. 그럼으로 自由主義라는것은 파-시즘과 맑시즘에서 어느것이 더만히 自由를 擁護하고 더만히 自由를 實現하는 政治的勢力이냐를 區別한다음에 더만히 自由的인 政治勢力에로 追從하려는 한개의 態度인것이고

一志一 向性인것이다. 그럼으로 知識階級論이나 自由主義論을 말할때 반드시 配彩되는것은 良心이니 『산세리티』니 『모라리티』하는 말들이다. 이것이곳 自由主義는 主義가 아니고한개의 態度이나 志向이라는것을說明하는것이니 萬若 自由主義가 한개의主義라면 그때는 벌서 이런말을하지안코 政策이니 綱領이니하는 더行動的인말로 規定할것이다.

이러한見地에서 新自由主義文學이란 決코 第三인터내슈낼에서 協調의손을 내밀때 第二인터내슈낼사람들이 거긔에 應해서이러난 去勢된 文學運動이아니것이고 世界의 良心的인 作家들이 이文化의 危機에 다닥어서 그不安과 焦燥를 超克하려는 한개의 苦悶에서인 運動인것이다. (此項未完)

圓舞 —— 沙翁劇『한여름밤의꿈』의한場面

古平壤을차저
考古學的趣味의散策記
④ 洪鍾仁

昨日 紹介한 申氏樂浪國說에 對하여 不足한바 잇섯스므로 補足할 必要를 늣기다 即 南北『펴란』(樂浪)의 南, 『펴라』 今大同江上에 잇섯든 朝鮮族의 樂浪國에 對하여 建國이 언제인지는 未詳하다고 하엿고 記錄은 三國史記의 新羅本紀, 高句麗本紀, 百濟本紀를 引用하여 考證하며 그王崔理라는 일흠까지 잇슴을 밝히엿다.

平壤樂浪說

다시금 말하거니와 問題는 文獻의 蒐集과 攻究와 解釋에 잇다。 漢의 屬郡인 樂浪郡이 遼東에 잇고, 朝鮮族의 樂浪國이 또 別個로 今大同江上에 잇섯다는것은 申丹齋의 貴重한 文獻的引用과 乃至는 그訂正으로 毫末의 疑點이 업는듯도하다. 더구나 扶餘族이 南下한 民族移動의 大勢의 辭流를 미루어 보드래도 우리의 信念을 굿게한 者이라할것이나. 그러나 漢帝國과의複雜한 關係와 技策에 들어가는 地方的問題의 繁累의 解明에는 구석구석 알고십흔바가 업지안라 그리고 漢書地理志의 樂浪郡條의 記錄은 後人의 解釋이요, 唐以前各史의 東夷列傳은 後人의改竄이許多하고 그中에서도樂浪玄菟에 關한것은 大部分假造라함은 다시우리의 새研究課題에 屬할者인것이다.

◇

그런데, 日本內地人의 史家와考古學者들의 說은 樂浪에 對하여 多少의 枝葉的 疑問을 안가짐은아니로되 大幹에잇서서는 今平壤은 衛滿의古地요, 樂浪府의 治所이엇다는것을 주저업시斷定한다。 即

一、燕의 亡命客 衛滿이란者朝鮮王이되여 平壤에 都하엿다가 其孫右渠時에 漢의 미움을사서 武帝元封二年이를 攻滅하니 約二千四十二年前, 西曆紀元前百八年이다

一、武帝는 朝鮮의 地를 直轄領土로하여 樂浪, 臨屯, 玄菟, 眞番의 四府를두엇다. 첫재二十七年에 漢昭帝始元五年 臨屯 眞番의二部를 廢하고, 玄菟一部를 樂浪에 併合하니 樂浪은 二十五縣이엇다

一、始元五年에서 百十二年後, 後漢光武帝의 建武六年에 內政에힘을쓰며 邊府의 一部를 廢하여 十八縣으로고치엇다

一、다시百七十餘年後, 後漢末에 遼東太守 公孫度, 漢帝國의衰흠을보고 自立하엿다 이때에 北方의高句麗, 南方의 百濟新羅, 東方의濊族等의 强盛으로 治郡이 如意치아니하야 其子康으로하여금 樂浪南方에 帶方一郡을 設置케하여 補强工作을 하엿다

一、後漢이亡하고 三國時代에들어가 北方을 占領하엿든 魏가 公孫을滅하고 統治하다가 晉의 領有가되엿섯는데 高句麗 美川王十四年 이를 擊退하니 晉의愍帝建興元年 西紀三百十三年이다. 漢族은 完全히 樂浪을喪失하엿다 其間漢民族의 領下에 잇는 樂浪郡時代가 四百二十年이라는것이다

이가치하여 朝鮮半島는 一時, 漢帝國의 全體勢力의 一部를 남기고는 모다가 漢의 屬地가 되엿섯고, 그中에서도 黃海, 平安道는 完全한 漢民族의 植民地로 되여잇서, 多數族이 移居하야 統治群의 地位를 차지하고 朝鮮土族은 이에 隸屬하엿섯다는 것이다 이러함에 文獻의 依據함바 잇는 限, 『扶餘의 勇猛』과 『四千年來疆域의 名곳까지 前說을 否認하고잇다 그뿐인가 平壤·即 漢의 樂浪郡이라는 說을 主張하는 學者들의 前記의 說을 보매, 扶餘族의 南下와 三韓, 三國의 發展에 關한 文獻引證이며 立論의 前後 脈絡이 어떠케 되엿인지 到底히 미더지지 안는모호한 個所가 또한적지안흠에라

◇

結局은 文獻의 싸움 學者의 情熱과 史眼의 透徹力의 競爭이 우리의 注意를끈다 여기에 果然어느說이 眞實이나 하는것은 한갓 偏黨이나 權勢로써 싸울바아니다 다만 嚴格한 學的探究에만 依할것이나 以上의文獻上의 싸움은 結局 다시文獻上 싸움의 延長으로 돌아가지고 내종에는 文獻의 否認이니 僞造이니하는 종잡을수업는 混戰에 빠질 念慮도 업지안타 우리는 이에 다시科學的 새方法의 必要를 늣기게되는것이니 文獻考證도科學的 方法의하나가 아닐은 아니나 이와가튼文獻의 混戰에 잇서서 史實의嚴正을 못고심혼곳은 말업시 二千年의舊態를 남기고잇는 이땅의 山河이니 日, 今日平壤의南方 大同江下流 十五里되는곳에서 十數年來로 發掘되는 樂浪郡治趾와古墳等의 許多한遺物이다。 그러면 漢代의文化 樂浪의遺物은 어떠한것이냐하는것과 이와同時에 問題되는 高句麗의 遺物에對하여 今日考古學이論하는 一端을 알어보기로하자。(계속)

朝鮮古典文學의 階級的觀察論 (一)
具滋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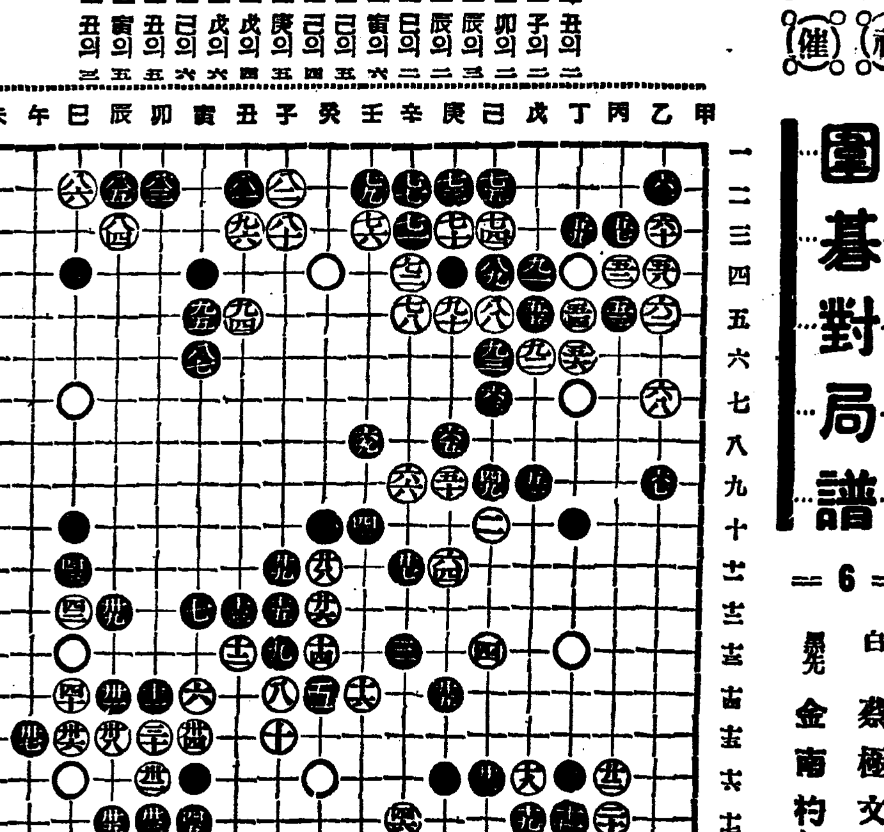
前言

朝鮮의 社會階級은 어떠케分割되엿섯고 그各階級에서 産出되文學은 어떠케 對立되엿스며 어떠한 形態, 어떠한 樣式으로, 달리나타나 잇는가? 어떤階級의 文學이 다른階級의文學우에 支配的 位置에 잇섯든가? 그러치도 안타면 階級文學으로는 불수업슬만치 統一된 思想과 一致된形式으로 나타나 잇는가? 이러한 모든 問題를 작긴 考察하여보는것이 朝鮮文學研究에 잇서서 意義업는배아니라고 생각하고 極히 生疎하고 條理업스나마 이붓을 든것이다.

아즉것 筆者는 남보다 몬저 이러한 方面에 着眼하고 研究하야 朝鮮 學界에 發表한것을 보지못하엿스니 이와가튼論文으로서도 새로운 朝鮮文學研究에 잇서서 새로운方法의 動議로나 또는朝鮮文學門外人에게 對하야 啓蒙的任務가 될수잇다면 過分의 多幸이라고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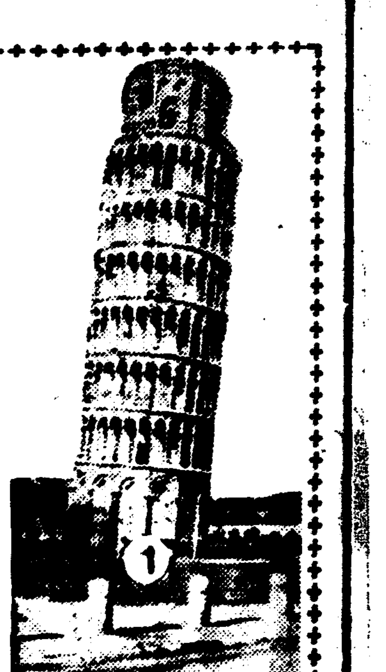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6─
白 蔡極文 ─ 當局
黑先 金南杓 ─ 秀才

●(百二十一) 丑의二
○(百二十二) 子의二
●(百二十三) 卯의二
○(百二十四) 辰의三
●(百二十五) 辰의二
○(百二十六) 巳의二
●(百二十七) 寅의六
○(百二十八) 己의五
●(百二十九) 己의四
○(百三十) 庚의五
●(百三十一) 戊의四
○(百三十二) 戊의六
●(百三十三) 巳의六
○(百三十四) 丑의五
●(百三十五) 寅의五
○(百三十六) 丑의三



◆對局者談 白이 癸의 四將陣內를 掩規模로 編成함은 謹愼에는 近似하나 籠絡機關은 蔑如하다 白이 我初에 寅의 四黑將을 互相包圍하엿스면 白의 活路가 一層 더方便할듯 推想된다 黑도 寅의 四將馬를 徐徐引出하야 別無侵害하니 謹愼之道는 彼此一般으로 看譜하노라

羅馬印象記



로-마에 온지도 벌서 十數日이 지낫습니다。古羅馬帝國의 繁華를 자랑하든 이羅馬는 지금까지도 멧千年의 그때遺物이남어잇서 이나라사람들의 자랑거리가되여잇습니다。 거리 거리마다 늘려다니는 돌조각하나까지도 일홈을붓처서 이것은 어느때 어느皇帝의 使用物이라고 說明하는것이 이나라사람들의 矜持인同時에 또한 消日거리입니다。

지금은 뭇솔리니가 한창 古羅馬帝國의 光榮을 回復한다고 떠드는이때라 그네들의夢想은 全部 英雄主義에 빠저잇슬것은 必然한 事實일것입니다 더구나 그네들이 지금 그夢想의 第一步로 亞弗利加遠征에 熱中한 판이라 이나라사람은 男女老少업시 길거리에서 만나주고받는 첫인사는 이戰地消息에關한 問答이고 甚至於中에서도 不時에 불리워서 戰線으로가게될일로 걱정하는者 만는듯합니다。

그러나 이나라사람들이 外面으로는 政府를 支持하고 『뭇솔리니』를 絶對的英雄이라고 崇拜하지마는 內幕에잇서서는 이번 亞弗利加遠征에對해서 不滿을 품지안는사람이업습니다。그럼으로 政府에서는 갓가지方法으로 이戰爭에 國民의 內心的 [illegible]되지안케하기위하여서 努力하고잇습니다。그方法은 첫재 新聞의 報道가 一擧政府의 指示대로 만하게되고 出征한 軍人이 집에 편지를써도 問安以外에는 戰地情況은 全部못쓰게되여잇다는것입니다。이러케 禁하지마는 어더케 傳播되엿는지 亞弗利加는 몹시덥고 惡疾이 流行하여서 行軍이困難하다는것을 모르는 사람이업습니다。그럼으로 이나라사람들은 누구나할것업시 혹시나 자긔 자식도 불리워가면 엇더케 하나하는 걱정이 사람마다의 가슴속에 채여잇다는것을 그네들의 表情으로 넉넉히 볼수잇는것입니다。

安모이서 寄

黑風 【176】
韓龍雲 作
金熙超 畫

미인계(美人計) 4

『다른 녀자론는 무론 쉬지안한 일이지오 그러나 봉숙씨가튼 인물로서야………』

하는 학명은 깁분 이미가 넘어 잇다는듯이 말끗을 마므지 아니하고 웃는다

『저의 인물이 어떠라는 말슴이야요?』

『어떠타니요 훌륭하다는 말슴이지오』

『그것은 거짓말 이십니다 저의 인물은 아모것도 아닌데요』

『천만에 나는 이세상에서 녀자를 상당히 만히 보앗지마는 봉숙씨의 인물가튼 인물은 처음입니다 인물뿐인가요 백래가 구비하지요』

『그것은 과한 말슴이고 그래 제가 부자에게로 시집을 가라면 갈수가 잇슴가요?』

『물론이지오. 당장이라도 갈수가 잇지오』

『어떠케요?』

『어떠케든지 갈수가 잇지요』

『그러케 막연하게 말슴하지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슴해보서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안치마는 결혼생활을 아니하기로 작정하얏다는 분에게그런한말을 하얏자 소용이 잇나요』

녀자를 다르기에 상당한 경험과 수단이 잇는 학명은 봉숙의 마음이 다소 자기의말에 쏠니는듯 하므로 자기는 도로혀 고삐를 늦추고 한편으로 올무를 노아서 봉숙으로 하야금 점점자기 의 말에 올키도록하라는 생각이엇다

『만일 제가 결혼할 생각이잇다면 어떠케 하실려야요』

『결혼할 생각이 잇다면 이라는 말은 가정(假定)이 아니여요? 그러한 가정을 전제로 하는 말에 구체적 대답을 하기는 조금 무엇하지 아니여요』

그들의 문답은 차차 아름다운 지경으로 드러가랴 할때에 마침 의사가 진찰하러 드러오므로 그들의 말은 중단이 되얏다

학명의 의사가 드러오는때마다 자기의 병세를 무러본것이엇다 이번에도

『병세가 어떠한가요』

하고 무럿다

『하로 이틀에 급작이 낫는병이 아닙니다 차차 낫겟지요』

하는 의사는 본는때마다 못는말을 대답하기에 실증이난듯이 범범한 태도로 말을하고 진찰을 하고나더니

『마음을 안정해야 됩니다 의약으로 치료하야도 효과가적은것이아니까요 진찰을 하니까 지금도 마음이 흥분된모양입니다 주의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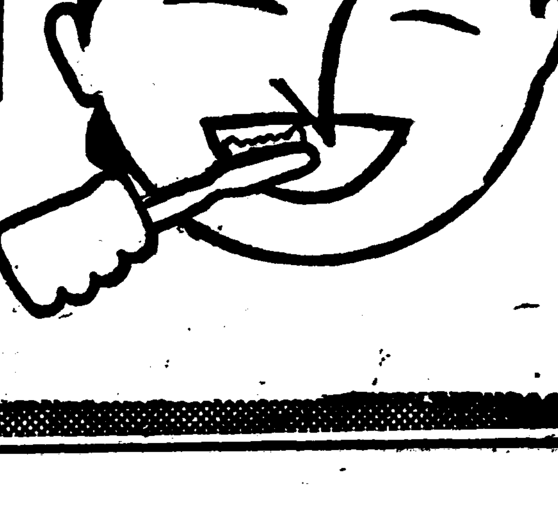
하고 의사가 나간다 봉숙이도 청진기(聽診器)를 가지고의사의뒤를 따라나갓다

학명이는 본래부터 호색하는 사람으로 병이 더치는때에는변태적 성욕이 이러나서 스스로 억제치 못하는일이 만한대 입원한뒤로 봉숙의아름다운 얼골을 사모하야서 날이 갈수록 애착심을 익일수가 업스므로 무슨 방법으로든지 봉숙이와 결혼하겟다는 생각으로 봉숙에게 대한 태도가 유달리 달버오다가 그날은 비로소 말을 부처보기 시작한것인데 봉숙의 태도와 말을 대답하는 어훈이 칠분이나 자기의 말에 기우러젓다고 생각하야서 다소 안심이 되는듯하얏스나 아직 확실한 결론을 듯지못하얏스므로 다음 기회에는 어찌하든지 결말을 내이리라고 생각하얏다

봉숙은 학명의 병실에서 나와서 학명의 한는말의 의미가 어대잇는가 하고 생각하야보앗다 학명은 처음부터 자기에게 대한 태도가 이상하얏스나 자기는 학명에게대한 모든 감정이 정남이가 떠러저서 학명의 태도를 본체만체 할뿐아니라도로혀 반감을 가지고 대하얏는대 그날에 학명의 수작은 너무도 로골적 이어서 나종에 어떠한말이 나오리라는것은 대강 직작할수 잇스므로 그러한 말은 대답 하기도 실엿스나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업지아니하야서 학명의 마지막 말까지드러보라고 하기실흔 대답을 억지로 하든것이며 의사 때문에 중단된것이 도리혀 유감이라고 생각하얏다

潤製라이온齒磨

쓰기좃코．實用的이며．第一조혼齒磨粉



齒牙를잘닥거서
身體를健康케합시다

東光學院의曙光

李往禎氏七百圓喜捨金으로 今月末에校舍竣功

【興南】서호진에잇는 사설강습소 동광학원은 초등교육기관으로 그내용의 충실함과 기타모든설비에 잇서서 어느공립보교에 질배업는 함주군내에 우수한 학원이다 해를 거듭하여 수백명의 졸업생을 내엿고 현재 재적생수도 오백여명에 직원륙인이 열한사람으로조직된 리사회의지도로 원만히 운영되고 잇다는데 한가지 깃거운 소식이 잇스니 서호시내에유수한 실업가로 또한사회사업에 적지아니한 힘을 쓰고잇는 리주정(李往禎)씨가금춘이래 계획하고잇는 동광학원증축에 일금칠백원을 희사하얏다고한다 그로말미아마 동광학원증축사업은 의외에 진전을보게되여 금월말까지에 준공을하리라하며 준공낙성을 기념키위하야 재학생 작품전람회와 리준각소학생 작품전을 개최하리라하며 방금그준비에 분망중이다 그리고 리주정씨에게는 학원으로서 감사한뜻을 표하기위하야 기념품을 진정하엿다한다

旱災地義城郡에 免稅額五千餘圓

個中七個面이尤甚

【安東】경북의성군일대는 금년중 희유의 한발로 일반농형이 흉작을 면치못하엿다함은 루보한바어니와 요사이 동군세무서로서 재해조사에 대한결과를보면 재앙이우심한 칠개면(丹密、丹北、多仁、龜川、比安、金城、安溪)의피해면적이 천여정보로 면세액은 오천구백여원에달한다

留學生學友會 慰安의밤開催

【京都】경도조선류학생학우회에서는 회원간친과 위안을 피하고저 오는 이십삼일 오후여섯시부터 동지사대학영광관(同志社大學榮光館)에서 『위안의밤』을 개최한다는데 당야의 연출종목은 회원들의 학교단위의 극음악 기타 연기등으로서 퍽흥미잇슬것을 예상하며 일반회원등은 무루히 참석하기를 바란다 한다

高普校長會議盛況

【公州】전조선고등보통학교장회의는 지난 십일일에 당지 고등보통학교내에서 개최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전긔 교장회의는 예정대로 당일에 개최하엿는바 출석인원은 도변(渡邊)학무국장과 본도 학무과장을 위시하야 경성 제일 제이 청주 신의주 전주 광주 대구 동래 진주 해주 평양 춘천 함흥 경성 공주등 전조선각도 십오교장이 일당에 회합하야 여러가지 타합을 하고 당교주최사업의 위인성인(偉人聖人)의 유묵전람회를 관람하고 지난 십삼일에 일동일행은 자동차로 유성(儒城)을 경유하야 부여사적을 시찰하고 산회하엿다 한다

異次頓의死 【43】

李光洙 作 金奎澤 畫

안해와 반달은 넘어도 황송하고도 수삽하여서 고개를 들지못한다。이런 귀인──신라에 서한 귀인이아니라 매수한가의 청한을 비며서 그 집으로 갓된 귀인──이런 귀인의 압헤 나오기는처음인지라 두 녀자는 어찌할줄을 몰랏다 더구나 이차돈의 이 세상 사람 갓지아나한 아름답고도 무섭단 용모를보고는 때에야 어찌할줄을 모르도록 마음이 혼란하엿다。

이차돈은 반달을 [illegible] 말봄을 생각하엿다。더구나 그반달이라는 어린이 달님을 생각케하엿고 더구나 반달의 얼골이 달님과 비슷한것이 달님을 생각케하엿다。달님보다 좀 무거운하이 적은것은 그 광항한 아비를 닮은것이겟지마는마치 귀인의 집 딸인것 가틀아름다움이잇섯다。

집을 떠난지 달반、인제는찬바람 불고 눈날리는 때도 되엇다 객지에 차되찬 외로운생활에 아름다운 고국 녀자를보는것이 이차돈에게도 그리 불쾌한 일은 아니엇다。전신에 따뜻한 김이 도는듯하엿다。

거울보고는 이차돈의 눈이 자조 반달에게로 가는것을 보고 감사한 웃음을 띄우며、

『악아、너 오늘은 서방님께 인사를 엿주엇스니 인제는 각금 와서 수종을 들어들여。옷도 차자들이고 잠자리도 보살펴들이고。지금까지는 하인들이 혯지마는 어듸 하인식혀 수종들게합 손님이시냥。마누랑 마누라도 각금 채근을 하옹 내야 장사에 바쁘니깡 서방님 서방님께서도 인제부터는 무슨 시킬 일이 잇스시거든 아나 하고 부르시든지、반달아 하고 부르시든지 아모때나 불르서서 시키시옹 원、도모지 미거하고 장사아치집에서 배혼것이 업지마는 또 어듸 점잔으신 댁 예법을 압니깡。잘못하는것이 잇더라도 다 덥혀주시공 원 이몸의 집에 서방님께서 유숙을 하시다니。자、인재 다듭 가서 저녁진지를 차려들여、자、어서』

하야 안해와 딸을 쪼차버리고 자긔는 다시 들어와서 아까보다는 더 친숙한 태도로、

『오늘 서라벌에서 온 사람을 만나서 서방님께서 어찌하야 오신 사정을 알엇소。서방님께서 부마되시기를 마다하시고 이마로이손의 따님을 사랑하신 죄로 삼년간 구양살이를 오신것이란 말즉음 듯엇소。』

하는 말에 이차돈은 놀라는 빗을 보이며、

『서라벌에서 누가 왓단말요?』

『네。들으셔도 모를 사람이오。이 몸의 아프로 명주 사려 다니는 차인이오。그놈이 바로 오늘、이 몸이 편싸흠판에서 돌아오니까 왓겟지오。그래서 서방님 말슴을 다듯엇소。아모려나 인제는 삼년동안 고구려에 계실 모양이니 젊으신 양반이노 혼자 계실수가 잇소니까。이몸의 딸년이 과히 추물은 아이니、네、그저、외람된 말슴이오나 수종이나 들게하여주시면 이몸의 소원도 되옵고 이몸의 계집의 소원도 되옵고、또 이몸의 딸년의 소원도 되온』

한다。

서라벌에서 온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란 말에 이차돈은 마음을 노하다。이차돈은 한아버지 한마로의 말을 긔억한다。고구려로 간 뒤에도 펼지 자긔의 목숨을 엿보는 사람이 잇스리라는것이다。

이차돈은 평양까지 오는 길에서도 항상 누가따르지나 아니하나 하고 살피엇스나 지금까지는별일이 업섯다。그러치마는 이 압으로도 선마로와 거칠마로가 무슨 흉계를 쓸는지도 모른다。

선마로(立宗)자신도 일품의자리에 야심이 잇겟지마는 비록 저는 못되더라도 제 아들 시머마로(彡麥宗)는 지금 일품의 오직 하나인 친 조카로 당연히 다음번 일품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잇는것이다。이를 위하야는 우선、지금 일품이 가장 사랑하는 이차돈을 업시해버리지아니하면 마음이 노히지 아니할것이다。선마로이손은 필시 이차돈과는 달넘을 위한 원수인 거칠마로를 이용하여서 이차돈을 해하려들것 갓햇다。이것은 한마로의 뜻 깁흔 말을 듯고 돌아나와서 두고두고 생각한 결과로 어든 이차돈의 결론이엇다。

洋服과革靴

◇世界一、廉價生産都市인、名古屋製品大宣傳、大衆的大供給 (全)

販賣코ー쓰大革命! 販賣品을全部自家工塲에서 製造하야 大衆的으로 大廉賣함으로서 特約店、仲買人、問屋도無用의 獲物이올시다 이런革命的大廉價品을 꼭一次利用하시라

大産‖大販‖市價의‖半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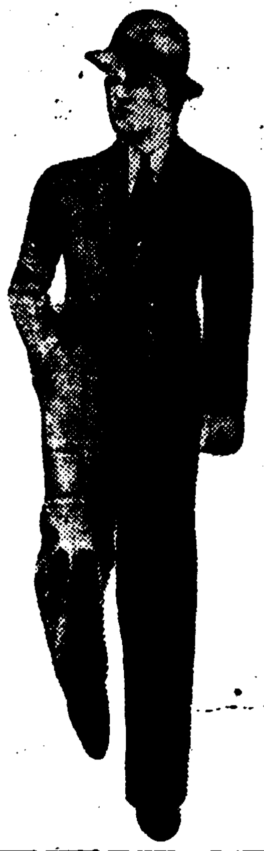
◇小賣市價의半額以下、絶對責任付、不向返金、換品自由

御注文은‖手紙로申込하시오 便宜上代金引換으로荷送함
絶對保險‖品質耐久絶對保險、必히地方小賣價의半價以下
品替返金‖마음에맛지안코返金自由絶對로迷惑케아니함
送料實費‖買主負擔荷造費는當店負擔

名古屋市東區千種町 (古井坂電停前)

合資會社 金城商會 販賣部

製造元直販 電話東五二一四 振替名古屋一七六



紳士向、ウーステツト地、背廣洋服

本年流行의紳士用ウーステツト地最新柄薄色地에杉綾、縞柄、格子柄等年齢指定하시라

上品 ◉ウーステツト地에アルパカ總裏付 三ツ揃一着 十五圓五十錢

特品 ◉特上ウーステツト에本絹朱子總裏付 三ツ揃一着 十八圓五十錢

紳士向、最新ピツケ地、背廣洋服

高級中年向으로서小ミジントアセ柄의優良品이다裏는アルパカ와絹朱子總裏付

特選高級品 三ツ揃一着 十六圓五十錢

紳士用、メルトン地、背廣洋服

羅紗メルトン無地、紺、黑、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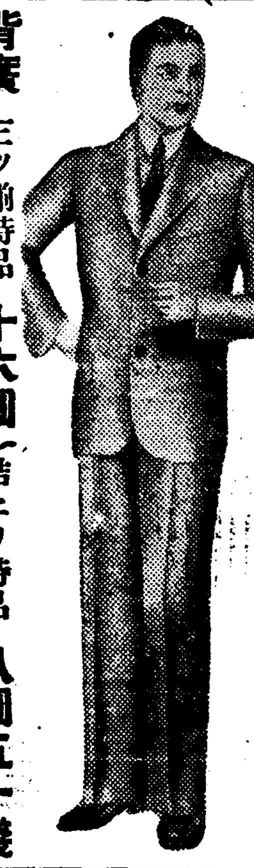
上品 三ツ揃一着 十一圓

特品 三ツ揃一着 十四圓

縞スコツチ地、背廣洋服

青年、中年向에適應裏는洋朱子總裏付極上等冬向紳士用。

青年中年向 三ツ揃一着 特品 十三圓五十錢



冬向背廣サージ洋服 紺・黑・

有仕立入念丈夫向一般用。

背廣 三ツ揃特品 十六圓 詰エリ特品 八圓五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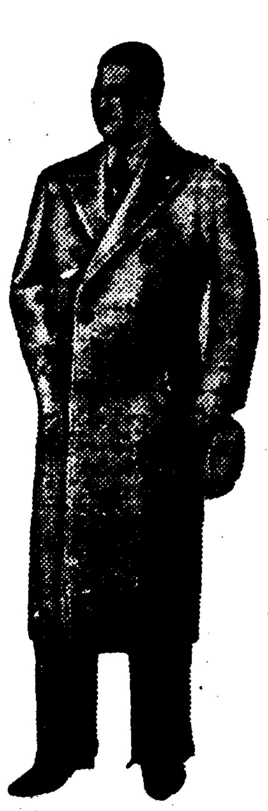
背廣 三ツ揃上品 十一圓 詰エリ上品 六圓五十錢

紳士用トンビ

本ラクダ地 一枚 金三十三圓

高級ラクダ地 一枚 金二十三圓 生地는本ラクダ本絹朱子總裏付。

本ロスキン地 一枚 金十八圓 高級品으로서極上ロスキン地로서本絹朱子總裏付市價三十圓以上의品인바이오 丈尺二尺四寸、三尺五寸、三尺六寸



特製、實用向、羅紗オーバ

實用向 色合 黑、紺、茶

生地는極厚地上等羅紗로서裏는新毛朱子上等袖裏絹朱子는가장丈夫向大好評、市價十圓以上品이오라

丈 二尺八寸 二尺九寸 三尺 片前型 金五圓五十錢 兩前型 金五圓九十錢

紳士用、羅紗メルトンオーバ

色合 黑、紺、茶

生地는極上等メルトン으로洋朱子總裏付袖裏絹朱子付、仕立入念附屬品別付、紳士用의最新型이다

二尺八寸 二尺九寸 三尺一寸 片前型 金七圓五十錢 兩前型 金七圓九十錢

高級、杉綾スコツチ、オーバ

最高級品으로서純毛杉綾에新柄入으로鼠、茶等茶色等

生地는上等スコツチ로서裏는絹朱子、袖裏絹縞朱子仕立은高等職人의謹製仕立

色合 霜降、杉綾 茶、鼠

二尺八寸 二尺九寸 三尺 三尺一寸 片前型 金九圓五十錢 兩前型 金十圓五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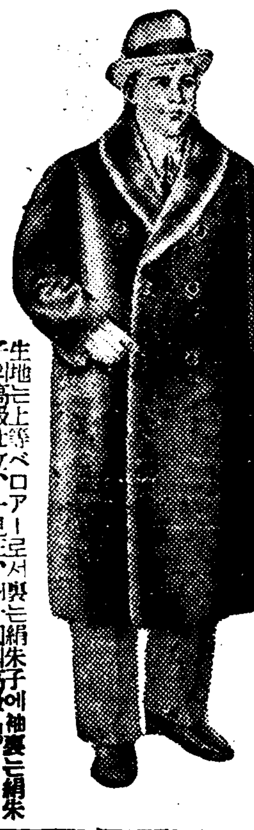
最高級、キロツトラクダ、オーバ

生地는上等キロツトラクダ로裏는本絹朱子袖裏本絹縞朱子仕立은高等職人의謹製仕立。

色合 紺、黑

二尺八寸 二尺九寸 三尺一寸 片前型 同値 金十七圓五十錢 兩前型 同値 金十八圓五十錢

兩前



高級ベロアー、オーバ

生地는上等ベロアー로서裏는絹朱子에袖裏는絹朱子의高級仕立、一見三、四十圓의高級品。

色合 紺、黑

二尺八寸 二尺九寸 三尺一寸 片前型 同値 金十三圓八十錢 兩前型 同値 金十四圓八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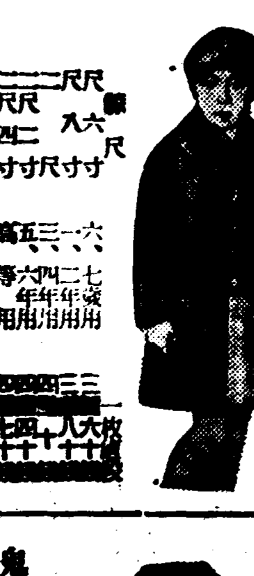
オーバ襟毛付는一着에三圓八十錢高値

大衆向グランド羅紗オーバ

生地는極厚地上等スコツチ羅紗로서、バンド付最新型仕立入念大衆向의實用品。色은鼠、茶、霜茶의杉柄等流行品

色合 黑、紺

丈 二尺二寸 一枚兩前 金四圓八十錢



羅紗男學生用オーバ

◎防寒用、生地는厚地羅紗メルトン色은黑、紺、茶色等、兩前型總裏付仕立入念

丈尺 一尺六寸 六、七歲用 一枚 三圓六十錢 / 一尺八寸 一、二年用 三圓八十錢 / 二尺 三、四年用 四圓十錢 / 二尺二寸 五、六年用 四圓四十錢 / 二尺四寸 高等用 四圓七十錢

羅紗女學生用オーバ

防寒用의極厚地羅紗ベコアー仕立高級品 色은ラクダ、花紺、兩前의總裏付仕立入念

丈尺 一尺八寸 一、二年用 一枚 四圓三十錢 / 二尺 三、四年用 四圓六十錢 / 二尺二寸 五、六年用 四圓九十錢 / 二尺四寸 女學生用 五圓五十錢 / 二尺六寸 同 六圓十錢

最新流行 オペラ、マント

本品은女學生間에非常한歡迎을밧는流行品인바 곽格以上의實行을나타내는實用的女學生マント로서賣店의店頭에推奬할만한것이올시다

丈尺 二尺二寸 女學生用 三圓八十錢 / 二尺四寸 同 四圓四十錢 / 二尺六寸 同 四圓八十錢 / 二尺八寸 同 五圓六十錢

黑羅紗、學生用洋服

◎生地는極上等羅紗로서、朱子裏付金ボタン付仕立入念

◎小學生用의丈夫向、長ズボン付値段이비쌈 ズボンス各十錢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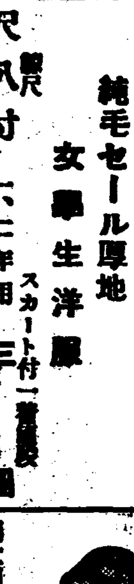
丈尺 二尺二寸 一、二年生用 三圓七十錢 / 二尺三寸 三、四年生用 四圓 / 二尺四寸 五、六年生用 四圓三十錢 / 二尺五寸 高等用 四圓八十錢

黑羅紗外套 (金釦付)

上等厚地羅紗兩前丈夫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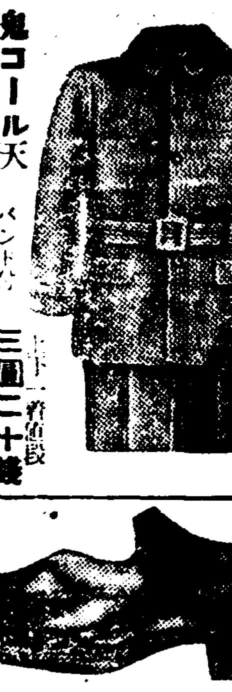
女學生服 各學校指定型 水兵型スカート付

丈尺 一尺二寸 十一、二歲用 頭巾付一枚値 四圓九十錢 / 一尺四寸 十三、四歲用 五圓五十錢 / 一尺六寸 十五、六歲用 五圓八十錢 / 一尺八寸 十七、八歲用 六圓四十錢 / 二尺 大人用 六圓八十錢



純毛セール厚地 女學生洋服 スカート付一着値段

丈尺 一尺八寸 一、二年用 三圓 / 二尺 三、四年用 三圓二十錢 / 二尺二寸 五、六年用 三圓四十錢 / 二尺四寸 女學生用 三圓八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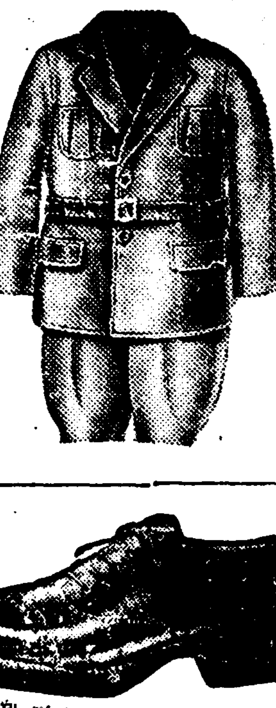
防寒コール天洋服

가장實用的인仕立으로된實用品

鬼コール天 バンド付 上下一着値段 三圓二十錢

絹コール天 ネル裏付 三圓五十錢

◎折エリ、ダブルエリ、長ズボン、乘馬ズボン等 大型、中型、色은黑茶色에도드러지고同値



防寒用別珍洋服

極厚地別珍、堅牢하고防寒品

防寒チャンマ服

バンド付ネル裏付 上下一着 三圓五十錢

◎折エリ、ダブルエリ、乘馬ズボン、長ズボン 大型、中型、小型各同値御指定

最新チャンマ服은各地의青年活動家에大流行 實行極上大型、中型等御指定을

絹コール天 一枚 一圓七十錢

別珍特品 一枚 一圓七十錢

小學用羅紗マント

◎上等厚地羅紗로서色은エビ茶、紫、ラッダ等頭巾付

丈尺 二尺 一、二年用 頭巾付一枚値 三圓 / 二尺二寸 三、四年用 三圓二十錢 / 二尺四寸 五、六年用 三圓五十錢 / 二尺六寸 高等用 三圓八十錢

幼年防寒洋服

參柄入高級ブロック地

水兵型 一枚 一圓八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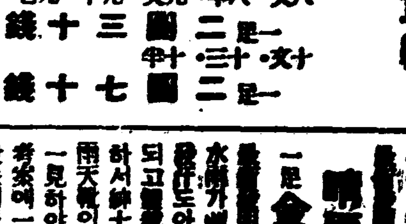
折衿型 一枚 一圓八十錢

大型二尺二寸男兒用、四、五歲用 小型一尺二寸、六、七歲用어느것든지同値御指定。

防寒、幼男女オーバ

男女向一御指定하시라 一千枚限、大特賣極厚地高級品

一尺四寸 四、五歲用 一圓八十錢 / 一尺五寸 五、六歲用 一圓九十錢 / 一尺六寸 六、七歲用 二圓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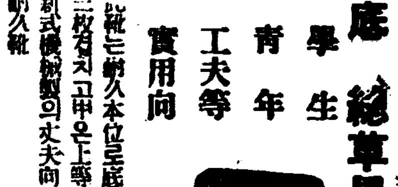
女學用總革靴

八文・八半・九文・九半・九七 一足 二圓三十錢

十文・十一・十半 一足 二圓七十錢

(化學의精華、人巧의妙) 晴雨經濟靴 一足 金二圓

水氣가배지안코 雨天靴이다 一見하야其考案에一驚안는이가업다



鬼三枚底 總革學生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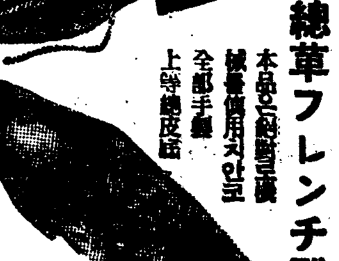
學生 青年 工夫等 實用向

此靴는耐久本位로底는牛厚革三枚겹치고甲은上等牛厚革으로最新式機械製의丈夫向値段安經濟的耐久靴

十文부터十二文迄同値

鬼三枚 短靴 一足 三圓五十錢

鬼三枚、編上靴 一足 三圓九十錢



流行尖端總革フレンチ型

本品은最新型으로實用本位 全部手製 上等總皮底

フレンチ型 編上靴 四圓二十錢

フレンチ型 短靴 三圓七十錢

堅牢無比 青年訓練總革靴 一足 三圓五十錢

比訓練靴는軍隊式으로된것이을시다 特히上等牛皮로 丈夫한 ... 耐久力이 軍隊靴以上입니다

耐久絶對 二ケ年以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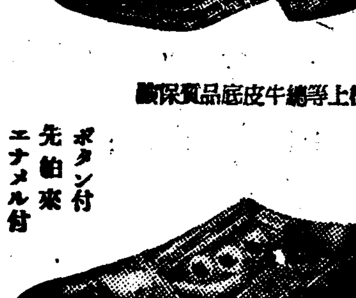
上等總黑皮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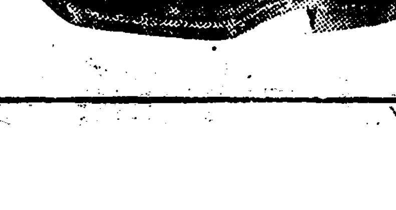
高級紳士 禮服用 總革靴

深型靴 五圓五十錢 短型靴 四圓五十錢

極上等總牛皮底品質保證

ボタン付 先帕來 エナメル付





高級、總皮革、大長靴

極上等牛皮革厚皮로서靴의內裏도全部白牛皮革인바高級의耐久品。製法은高級職人手工의謹製의紳士用、乘馬用의商品이며市價一足金二十五圓以上

總牛皮革長靴 一足 九圓五十錢

"中國의幣制改革"

經濟的意義를考察 (三)

徐椿

回顧하건대 米國의 大恐慌이 일어나든 一九二九年으로부터 一九三一年初까지는 世界的으로 銀價가 暴落하든 時代요、一九三一年三月부터 今日까지는 銀價가 反騰하든 時代인데、銀價騰貴의 動기 가장 效果를 滿니하기 始作한것은 昨年、即一九三四年、米國이 銀價引上策을 가장 效果的으로 採用하기 始作한後 부터이엇다。따러서 一九三一年三月以前을 銀價暴落時代라고하고 그以後부터 今日까지를 銀價反騰時代라고하야 說明을 試하기로 한다。그런데 이銀價反騰時代에 잇서서의 中國經濟가 그로 因하야 밧든 打擊、또는 中國의 밧든 그經濟的打擊이 財政經濟의 實際로 나타나는 現象으로 보아서 그것은 마치 昭和五六年、金解禁時代에 잇서서의 日本財政經濟가 金解禁으로 因하야 밧든 打擊과 가트다는것을 前回로 말해 두엇다。

여기서 看過、慶容의 銀貨流出을 防止키 爲하야 金解禁으로因한 日本貨幣流出과 中國貨幣流出의 銀價反騰으로 因한 中國貨幣의 兩者를 比較하야 同一한 點은 무엇이며、相異한 點은 무엇인가를 밝히고저 한다。

먼저 相異한 點 하나를 말해보면 日本이 主로 國內에 流通시키는 貨幣는 紙幣(兌換券)인데 對하야、中國이 國內에 流通시키는 貨幣는 主로 貨幣素材인 銀貨(讀本位貨幣로 되여 잇던을 稱)라는 一點이다。勿論 金解禁時代이엇스니까 日本에서도 그時代에는 金貨自體가 流通할 수가 잇섯는것이나 實際에 잇서서는 金貨自體가 流通한 일은 업고、金貨대신으로 나와도 은 兌換券만이 流通되엇다는것이 日本의 現狀이엇고、他方、中國에 잇서서도 本位貨인 銀貨 또는 銀塊를 發行準備로 두고서 發行한 紙幣가 流通되지 안는것은 아니나、이것은 流通額으로 보나、또는 流通範圍로 보나 도리어 例外에 屬하고、主로 流通하는것은 銀貨或은銀塊(銀地金‖貨幣의形式을 이루지 안은自然銀)自體다。故로 日本의 幣制에 잇서서 元貨를 指稱하는것이나、中國에 잇서서 元貨幣라하면 그것은 紙幣가 아니라 直接、銀塊을 指稱하는것이 된다。

이러한 重大한 差異가 잇기 때문으로 日本의 境遇에 잇서서 兌換券價値가 騰貴한다하면 그것은 그兌換準備로 잇는 金貨價値의 騰貴를 通하야 間接으로 騰貴하는것을 意味하는것이나、이와 달나서 中國에 잇서서 元貨價値가 騰貴한다하면 이것은 아모것도 中間에 通하는것이 업시 直接、돈自體의 갑(價値)이 騰貴하고 만다는것을 意味하는 것이다。그런데 이一點은 一國의 本位貨가價値騰貴에 逢着하야 外國으로 流出하는 點으로 보아 懸隔한 差異를 내는것이다。이點이 가장 注意할 點이다。이제 이 가장 注意할 一點에對하야 簡單한 說明을 부처본다면 이러하다。即 먼저 日本의 것이 오른다고할지라도 實際에잇서서 紙幣(一片의休紙)로서 制價値가 올나간것이 아니라 제 價値를 維持하기爲하야 日本銀行 金庫안에 드러잇는 金貨의價가 올라간데 不過한것이故로 紙幣自體가 直接으로 外國으로 갈수는 업고、兌換의 形式을 通하야 日本銀行의 金庫로 流出하려고 할때에는 紙幣自身이 直接으로가서 金貨 又는 金塊와 바꾸어 가지고야 비로소 外國으로 갈수가 잇는것이다。換言하면 紙幣自身은 못가고、金으로 換形해 가지고야 外國으로 갈수가 잇다는말이다。그런데 他方、中國의 境遇에 잇서서 元貨價値가 騰貴하면 이것은 直接、제 自身의 갑이 올나가는것을 意味하는 것이니까、中間에 換形하는 手續을 取할것 이 업시 제自身이 바로 外國으로 流出할수가 잇는것이다。以上을 簡單히 말하면 日本貨幣의 代表者、園紙幣는 換形해가지고 間接으로만 外國流出이 可能한데 對하야、中國貨幣의 代表者 銀은 直接으로 外國流出이 可能하다는말이다。그런데 이 點이 日本의 境遇에 잇서서 本位貨流出防止策을 講究하는데 至大한 差異를 生하는것이다。何故오하면 日本의 境遇에잇서서는 爲政者 모르게 秘密流出이 不可能한데 對하야 中國의 境遇에 잇서서는 아모도 모르게 살그머니 外國으로 다라날수가 잇기때문이다。金解禁時代의 日本의 境遇에 잇서서 新舊의 形式으로 國外流出한 金은 別로 업는데對하야 今番、中國의 境遇에 잇서서 銀의 密輸出은 大部分이 制度上과 個人的으로 나온것이다。

제自身이 直接 外國流出이 可能한 貨幣가 마라는 例는 아모 나라나 다 經驗하고잇는 바이지마는 가까운 一例를 드면 世界大戰當時銀價가 位敗한境時勢로 八十九片半까지 暴騰햇슬時代에 잇서서 日本補助貨五十錢자리新銀貨는 그巨額이 所謂에 依하야 中國、印度等地로 다라나 버리고 마럿든것이다。(繼續)

正租檢查副產物

米資移動線上異常

◇……從來海港地中心이든것이

僻地集中으로激增

正租檢查가 나흔 新現象하나! 新米出盛期에 잇서는 해마다 海港地로 正租가 殺到하야 倉庫에 入庫식히는것이 만코 이를 딸어 海港地銀行支店의 米穀資金이 激增됨이 常例인데 今年에는 正租檢查關係로 海港地의 精米業者가 僻地로 移動하는 傾向이 顯著함과 相俟하야 僻地에서 正租麯賣、調製玄米가 豐富히 集散됨에 依하야 僻地의 入庫가 增加한때문에 今年은 米穀資金需要에도異變이 생기어 流港地보다 僻地에잇는 銀行支店의 米穀資金貸出이 增加되는中이라고 한다。

米公定價決定難

最高價는現狀維持或五十錢高?

消費大衆壓迫을念慮

十二月中旬에 決定될 新公定에는 最高價格이 어떠케 決定될가 하는點이다 이亦是一般消費大衆의 關係에 留意치안흘수 가 업게될것임으로 그値上中心點이다 그러데 目下 一般物價가 騰貴하엿고 더구나 日本內地米收穫의 凶作豫想으로 最低價格은 昂騰케될것이다 그럿지만 目下의 米穀事情으로는 最低價格은 問題가 안되고 結局 米價格은 果然 얼마의程度가될 는지 오늘에잇서서 注目을 끄오을 어디까지 回避하고 現狀維持 或은三十二圓으로 五十錢高에 不過케되것이라는 消息이잇다

產業一元化

統制에反對

그러나協調態度로

殖產局의方針內容

日本內地와 朝鮮의 工業對立調整에 對하야 總督府殖產局에서도 朝鮮內의 立場과 全日本經濟的의 兩見地에서 對策에 腐心中 右에 對한 根本方針으로 如次한 一元統制에 過하는 協調로 遂行하기로 決定하고 係爭中의 琺瑯、人絹等을 비롯하야 今後의 問題에 對應하기로 되엇다 即 이는 日本內地와朝鮮이 工業條件을 달리함으로 日本內地와가티 統制함은 不可能

하고 朝鮮內의 事業勃興障害를 招來할 念慮가잇다 따라 一元統制는 斷乎反對이오 그反面國策인 統制問題에對하야서는 朝鮮內의 立場에서統制하야 日本內地側과 提携協調할 方針이다 그리고 朝鮮內工業助長은 適切한統制에 進展식히기로되엇다

朝鮮產綿織物

對滿出荷에局限

殖產局에서는 特히 右에 關聯하야 考慮하고잇슴으로 朝鮮內가 統制外에잇슴으로 低廉하나 懇質品이 輸出되고잇는 點으로 朝鮮產品의 聲價發揮에 注意하고잇다

◇昨報‖商工省으로부터 統制外 朝鮮의 綿織物輸出에對하야 檢查를 要望하고 그理由로 日本品

佛銀行利上

金流出의防止手段

◇…三分에서四分으로

【巴里十四日發電通】佛蘭銀行은 割引步合率을 三分에서 一分을 올리어 四分으로한것을 十四日에 公表하엿다 이것은金의海外流出傾向을 막으라는 手段으로 보힌다

▲蘇聯對外爲替比率改正

【莫斯科十五日發電通】蘇聯人民委員會는 一月一日로부터 對外爲替公定率을米價一弗에對하야 五留로할을 發表하엿다

聯盟의對伊制裁

各國經濟關係內容

◎…外務省情報部發表

체크國 (一)체크國政府는十月十八日 閣議에서 聯盟의對伊制裁決議를 承認한外에 그無條件遂行을 決議하야 今後聯盟에서 經濟制裁가 決議되는境遇는 체크國은 即時 參加할것으로 觀測된다 (二)체크、伊間의財政關係는體制하야 財政制裁의結果 체크에 밋는 影響은 거의 업슬것이다

土耳其 (一)近近 議會에對하야 政府決定에 따라서 對伊制裁의法案을 提出하리라고 傳한다 (二)伊太利는 土耳其가 輸出超過國임으로 伊國市場의喪失이 오래되면 相當한傷處를 밧을것이다 그러나 爲替決濟手續의澁滯로因한 代金回收의 困難及 時局의 前途不安으로 對伊輸出을 保留中임으로 輸出禁止로 急激한 打擊이 업슬것이다

羅馬尼 財政的制裁는 實施할것이나 經濟的制裁에 關하야 伊國으로부터의 輸入品及對伊武器에 輸出은 禁止할것이나 對伊輸出超過에잇는關係上輸出禁止는 致命的打擊으로 制裁的措置의實行은 可能性이 적다

希臘 一般輿論과 政府의聲明은 制裁決議를忠實히 守한다는데 大體一致하얏스나 그러나 制裁實施에伴하는損害의 救濟를 要求하고잇다

알바니아 經濟制裁不參加를 表明하고 財政經濟上 伊國에對한從屬關係가 緊密하야 가령 聯盟의壓迫이 잇드래도 制裁實行不可能의立場에 잇다

파르뷔야 聯盟에서 定한 制裁를 모두適用할을 主張로 決定하얏다 오죽 이點에잇서 발르안란드에 屬하는 라트비아、에스트니아、리트뷔니아三國이 一致한態度를 取할것으로 協議되야 對伊輸出禁止問題는 聯盟의決定에 따라서具體的으로 考慮할것이다

加奈陀 十月卄九日 加奈陀政府는 聯盟의 協議한對伊經濟的制裁를 實施할 措置를 取할것이며 伊國으로부터 輸入禁止는 實施手續考慮中이라고 發表함과 同時에그措置는 加奈陀國 將來의 行動에 對하야 前例로 될것이 아니며 또 武力制裁에 關하야는 何等加奈陀國을 拘束할 約束을 안슬것이라고 聲明하얏다

亞爾然丁 十月卄五日對伊制裁에 關한 大統領令을 公布하야 對伊及 그 領土에 向하는 武器彈藥品及 戰爭材料의 輸出 再輸出及 通過를 禁止하얏다(終)

中國新紙幣

使用을決定

英國系銀行商社가

【上海十五日發電通】國民政府의 新通貨政策에對한 英國銀行、商社의 態度는 各方面으로부터 注目을 밧는데 十四日 當地英國總領事는 香上銀行、차ー타ー드銀行、英米煙草、亞細亞石油、上海水道等 英國系會社의 首腦部를 召集하야 銀通貨에 依한從來의 負債及契約을 어떠케取扱할가함에 對하야 協議한結果 問題는 아죽 充分研究를 要하나 應急措置로 法律問題에 關係가업는 範圍에서 在中英國人은 銀通貨에 依한모든 支拂를 中國의 新紙幣로서 할일을 決定하엿다 이로서 英國側은 正式으로 中國의 幣制改革에 依한 新紙幣를 確認하엿다

朝鮮內에

人蔘移入

그數量이相當

人蔘의產地인 朝鮮에 日本內地로 人蔘이移入되고 또는 그數量이相當하다고하는바 이것은 島根縣、長野縣等에서 昭和九年으로부터 移入되야 그數量은 九年一八、四八一斤 價格六萬七千百九十九圓 十年에는 移入額이 더욱 顯著히 增加하야 今年九月까지 三六、八三〇斤 價格十一萬五千九百六十二圓에 達하엿다고한다

東洋工業會議

十五日京城에서

東洋工業會議는 最初日中滿三國工業會로 創設하랴든것이 外務省側의 注意에依하야 東洋工業會議로 改稱되것으로 이會議는한번만하고마는것이아니라 每年 各參加國에서 順次開催될것으로서 그처음會議가 十五日午前九時半부터 京城商議會議室에서 開催되엇다 工政會理事長 工學博士 子爵井上匡四郎氏外九名 朝鮮側政務總監 今井田淸德氏外四十餘名으로 그順序는 다음과가다

▲開會式

一、井上工政會理事長開會辭 ▲(午餐)

二、朝鮮總督其他祝辭

▲講演會(午後一時半)

一、日本의 簡易鋪製發達(工博、

一、國土環境에 依한 律…의 特殊性 神戶高工校長 古宇田實

二、資源으로본朝鮮의工業 中央試驗所長 山村銳吉

(寫眞은 同會場)

久野重一郎)

二、新時代에 應하는 工作機械의要素 海軍造機少將 松山升太郞

三、朝鮮의 石炭工業에 對하야 朝鮮石炭工業 工藤宏規

▲通俗講演會(午後六時半社會舘에서)

十月中의

金銀貿易

超記錄膨脹

十月末의 朝鮮金銀貿易을 보면 輸移出은 一億七千四百二萬二千圓 輸移入은 五千五百四十九萬五千圓인데 輸移入도 超記錄的膨脹으로 累年을 比較하면 (以千單位千圓)

	輸移出	輸移入
八年	三六、六四六	三六、五七三
九年	六六、九六	三一四
十年十月	一七四、〇二三	五五、四九五

으로 輸移出의增加는 銀移出이 一億七千四百萬圓에 達한때문인데 輸移入에는 金地金의 流入이 相當하다고한다

今日財界 (十五日)

◆米 (單位錢)

	今日正午	先月日
仁川期米 先限	二六九	三高
大阪期米 先限	二五四	九高
京城正米 玄三等 新一石	二六五	五低
正租(仁川)上 一斤 價下	三銭五厘	不變
	八錢二厘	

◆市中金銀價

金 一匁賣	十一圓十八錢	十二圓五錢
銀 一匁賣	三十七錢五厘	三十五錢

◆株 (單位錢)

	今日正午	先月日
朝新	三二〇	二〇高
東新	一五〇〇	一〇高
日產	七九〇	一〇高

◆商品 (先限單位錢)

大阪綿絲	二三三	五〇高
大阪棉花	六五五	一四〇高
大阪人絹	六三〇	一〇低
大阪砂糖	一二九	七低
고무現物	四十五錢五	先五十一錢五

無煙炭合同創立

來月三日報告總會

無煙炭合同은 九月一日에 資質的으로 그 合同이 成立되엇다 首腦部問題의 時礎로 報告總會 開催가 遲延되든바 十一月七日의 重役會에 殖產局長等도 列席하야 懸案의首腦部問題 三陟問題도解決되엿슴으로 十二月三日 京城本社에서 合同報告總會를 열기로되엇는데 首腦部其他 의詳細는 殖產局長歸任後 判明될러이라고

經濟界消息

○朝鮮送電總會‖朝鮮送電會社에서도 今月三十日 午前十一時부터 定期總會를 열고 當期決算案을 附議할터인데 無配當으로 內定하엿다고

○朝鮮海事會總會‖朝鮮海事會第十六回 定期總會는 十六日 午後一時부터 保險聯合에서 열고 다음과가튼件을 附議할터이라고

(一)會務와會計報告 (二)優良海員表彰의件 (三)評議員改選의件

○朝台株券本月末手交‖朝鮮台油會社의株券은 今月末 作製된으로 十二月中에 各各 各株主에게 手交키로되엇다고

豫算閣議後에

素高人氣喚起論

明年度豫算은 大藏省査定에依하면 二十二億一千七百萬圓이나 新規要求를 半減하엿슴으로 復活要求가 猛烈할것이오 復活査定案을 最低限으로하고 增額할것이다。豫算總額은 八年度以降 最高로하고 新規事業을 十一年度는 再增加로 擴張할것이다。十年度豫算은 所謂高橋財政에 依하야 臨時利得稅로 救濟된困難이 엇스나 明年度豫算은 지내면亦是 增加로 不少히 닥려진다로 豫算 閣議만 엇지로라도 지내면亦是 歲末高 人氣를 喚起케되리라는 觀測이잇다

實物株前場取引

賣買高 一八〇枚

▲大同電力五六五 ▲同新二三五 ▲北鮮製紙三五 ▲朝鮮石油一五〇 ▲金剛電鐵五九 ▲金剛電鐵新三〇 ▲富士木材三〇 ▲東新四五〇

大株當限納會續上

【大阪電話商通】大株에서는 長期取引銘株中 配當月로 受渡를 來廿五日로 繰上할銘柄이 多數임으로 各納會日及受渡日의 立會도 變更하얏다。

東拓의復活配當

四分說을否定!

東拓新株는 目下 十六圓五十錢까지 昂騰하야、一時의低價에比하야 七圓의高價인데 株式市場에서는 今期配當復活의 四分說을 盛히 買煽하고잇는때문이나 이에對하야 東拓支社에서는 否定的意見을말하고잇다

反落도終焉?

新動機待商狀

▲價直의後退、減收市勢로 보아 反落市勢를 旗하야야 昨日地場小口買、反日新規買等으로因作後場까지에 當限二十七圓七十錢、中限二十七圓八十三錢、先限二十八圓十九錢에까지 떠러지고나서 이것을 低價로 利食買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一一六五

期米

下支商狀 反强

前場底强 昨後場反止 三十圓三十六錢과 共히 二十八圓二十七錢에 止場한뒤를이어 今前場은 阪地初付三十高인 二十六錢을노코도 一丁低인 三十九에始場後 阪地四節四十四錢으로 少緊인을따어 三十錢四本同價로 頑强이고 阪止四十錢으로 三十一錢에止場하다。

後場伸惱 後場은 二十八圓三十五錢에 四丁高로 始場後二節 三十八錢이잇고 三、四節三十五錢에 伸惱로 三十九錢에止場하다

大勢高無疑나

目前活勢難望

大勢的으로는 凶作이 儼然한事實이오 先高人氣가 强함으로實情이 其할것이며 物價는 漸騰趨勢로서米價만의 獨不勢는不許이겟고 一般景氣도好轉이豫想되는結點으로보아 米價의崩落이란 想像할수업는터이나 때는 新米出盛期로서 高價에는 繁賣物이나오며 日本內地의 手當買도 一巡되엇슬뿐아니라 凶作에는 貸付와拂下가 行할것이오米價를吊上키爲한·政府의 買上도 바랄수업스니 目前的으로 市勢의 活躍을 至難視되며 中旬反戾下旬再落으로보는便이잇섯다

押目買로 引返步調에 入하야當限二十七圓九十錢、中限 二十八圓〇九錢、先限二十八圓三十一錢에 反强하야 下勢도끗난모양가티보이엇다。當限은 이미 二回發表前日의 市勢에까지 다시떠러젓다가 反高되것이고 中先限도 凶作買로急騰된三分二의 下押이잇슨後의引返이라 以上더떠러질것으로 보기는 어려웁고今後는 强氣가夢想하는것가튼大高價도 早急히바랄수업는 一面凶作이란 根幹事情으로 無碍한低落도 勿論잇슬것이 아님으로當分一高一下의保合이다가 新動機를 어더서分岐케될모양갓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表 [illegible])

목下旬物과 當用必需側의 準備買로 商談이 잘안되어 三一〇五 三等二十八圓六十錢 四等二十八圓三十錢 一等白米十一圓九十六錢

株式 頭重裡에 上進

商況 (十五日)

前場堅保 今前場은 스톱四十九弗八分一로 暴騰、米棉一圓一錢高、綿絲先限百十圓臺로 暴騰되等의 好感으로 東新六十錢高인 百六十二圓丁 寄付이엇스나 依然伸惱로 結局昨後引에比하야 東新三十錢高인 百六十一圓七十錢 日產不變인 七十九圓十錢 大新九十七圓四十錢에 各大引 朝新三十二圓八十錢 商船新十五圓丁一本이엇다

後場昂進 生絲를비롯한商品高好感으로 新續、人絹株高로東新이 百六十二圓四十錢에高寄、日產七十九圓六十錢 大新九十七圓九十錢 朝新三十二圓九十錢에各寄付後強堅裡大引

煽揚貝잇서도

顯著騰勢難期

시원스러게올는지못하면서도 總强氣的인市況이 果然어떠케될것이냐? 市勢의興味는 도리어적은 다때맛치歲末接近으로 市勢는 複雜性이더하야 注意되며 北中支問題와 내외諸株騰勢로 實際는前途難測인바 弱氣가적은 市場은 或은 一時的煽揚買가잇슬지도 모르나 伸力은 總强氣의 意在로 도리어 阻害되어 顯著한騰勢는 難望이아닐가? 그러하면 依然當分保合繼續의 不透明商狀으로 打診되며 總强氣

市場六感

株 第二段의大市勢를 노쳐서는안된다고 東新百六十圓臺를 굳잡고버리는것이 큰病痛▲이런친구들이 失望投하는날이곳整理完了日▲內外에難問題가 許多하니 積極的으로 買方針을 確立하기는 조심되다▲今月은整理로지내면 各社의決算內容도 알게되것이는데 大概는 業績이向上되엇스니 越月後再吟味의買氣가 나올지도 모르나 年內에는 別로 期待를가질수 업다는말로 一理가잇는듯▲그러라면 整理가튼整理低가 나오고말것아니냐? 閑散이면 一般으로 嫌氣가 나오게되고 春高希望도 시원치 안타면 年內에 一應退陣케될것이 아닐가?▲大勢高人氣가 거의 一致된 只今에 弱氣的見解는 듯리지 안켓지만 우선 警戒論이 如此

米 凶作의爆殺、急騰의 反動落이 五日間에 演出되고나서 市勢는 上下間一息에 入한모양 ▲前途高가 大勢라할지나 目前觀으로는 急騰될 理由도 업고 根據도薄弱하니 凶作만 밋고 買募키도 一考를要할일▲凶作先高人氣가 旺盛한 結果 買物이 先限에 集中되어 겨우 五、六錢의 齋輸로 發會하얏던 先限이 今日에는 當限보다 四十四丁 中限보다 二十七丁의 上鞘로擴輸 이 傾向은 去益高일듯▲米價高消費減의 結果 端境期에는 도리어 多大한 過剩米를 示케되리라는 需給觀도 不無▲急騰反落으로 市勢는 保合에入한 모양이니 新動機나가 대리자!

各地正米

京城不冴 市場의 不透明으로買氣不振이오 氣配五錢低인 仁三等二十八圓十五錢 四等二十七圓八十五錢 一等白米二十一圓五十錢

仁川小弱 賣行一巡과 期米의軟弱을 移하야 稍히 活氣가 乏하고 五錢低의 小柄商狀을示한 九仁三等二十八圓十五錢四等二十七圓八十五錢

釜山保合 市場出廻不少하니 移出側의 採算定期伸惱이나마

木浦續落 市場不冴와期行不振으로 今朝更히 十錢低인 仁三等二十八圓三十錢 四等二十八圓丁 一等白米二十二圓六十錢

群山軟調 保上昇에도 增加은依然頑强한 出廻로 買氣二十九圓으로 各等二十八圓二十錢 四等二十七圓九十錢 一等白米十一圓九十錢

大邱不動 賣行不引으로一般市中當用商의 必需買가 一巡되엇고 閑散하야 角ヲ三等二十八圓八十錢 一等白米

堂島前場實買 ◆賣方‖ 東京側 中東側 米錢側 地場正米側 ◆買方‖ 神戶側 後場小口側 中谷側

金融 (十五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illegible]

米穀 (十五日)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 ◆京城雜穀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十五日)

◆京城綿糸布市勢 ◆京城綿布 ◆日本蠶絲市勢 ◆지카고期貨 ◆紐育沖價 ◆大連特產市勢 ◆滿洲商況 ◆錦牌粕沖價

[illegible]

仁川期米 康益夏商店 仁川海岸町

京城株式 金益證券株式會社 京城黃金町

金.銀.白金

德

京城德力 地方注文代金引換販賣 要送料先金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334

京城府明治町

株 (十五日)

◆朝取短期實買高 ◆東京現株 ◆東京短期 ◆朝取短期 ◆實定代引日步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大實短期 ◆朝取期米實買高 ◆朝鮮內各地期米 ◆朝取期米

[illegible]

期米 (十五日)

◆大阪期米 ◆大阪期米取組 ◆大阪市中出米高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

商品 (十五日)

◆大阪綿糸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糸 ◆大阪砂糖 ◆紐外砂糖

[illegible]